



## 100년 계성의 우렁찬 함성, 성서벌 울려...

### 개교100주년 총동창가족체육대회 성대히 열려

2006년 10월 14일 성서 계명문화대학 운동장에서 개교 100주년기념 계성 동창 가족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예년과 달리 오후 3시부터 축하 공연이 계획되어 있어 9시부터 행사가 진행된다고 주최측이 사전 모임에서 협조를 구했

고,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출전팀 호출에 3회 불응시에는 실격패 시킨다는 김태호(55회) 진행위원장의 협박(?)이 제대로 먹혀들어 대회가 시간 안에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박성대 총동창회장은 대회사에서 「어제 기념식과 오늘 체육대회를 보니 계성이 하나됨을 느낄 수 있어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 <2면 계속>



## 경성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314-79  
TEL : (051)620-4114 FAX : (051)623-7803

- 곽 무 섭 (46회) 교수 국제무역통상학과
- 정 재 윤 (56회) 교수 제품디자인학과
- 장 세 호 (59회) 교수 윤리교육과
- 엄 태 규 (59회) 교수 환경공학과
- 이 승 대 (60회) 교수 프랑스지역학과
- 곽 병 휴 (62회) 교수 독일지역학과
- 김 영 중 (63회) 교수 사회복지학과



인사말

#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갈 주춧돌 놓아야...



계성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디 물러가던 더위로 인해 계절에 맞지 않던 11월이 본래의 모습을 찾으면서 주말이 되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여행의 계절입니다. 지나간 계절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계절의 초입에 서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 가정의 안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계성가족 여러분!

2006년 한 해는 우리 계성 총동창회 뿐만 아니라 계성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 보다 더 많은, 계성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큰 의미를 남겨 준 한 해였습니다. 그 의미가 올 한해에 이룩한 성과가 아니라 수년간 의논하고 준비했던 일들이기에 이 일들이 끝난 지금 저는 더 큰 기쁨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인사의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지난 10월에 있었던 많은 행사들이 주

마등처럼 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서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제가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작년 4월 9일(토) 있었던 100주년 기념 사업단 발대식과 금년 5월에 있었던 계성 한마음 축하 큰잔치를 비롯해 10월 13일 계성 100주년 기념식까지 숨 가쁘게 뛰어 다니며 만났던 많은 국내외 동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계성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모교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지난 100년을 이어오면서 우리 계성학교가 늘 순탄한 길을 걸어왔던 것만은 아님을 우리 계성 가족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어느 때보다도 모교와 우리 총동창회 그리고 재단이 잘 협조해왔고 동문 모두가 협력해 준 것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혼자서도 잘 해 나갈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모두가 힘을 합하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평소의 저의 생각이 옳았음을 저는 이번 기회로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멀리 LA지부에서부터 가깝게는 서울 지부를 비롯한 각지부에서 버스를 동원하여 참석해 준 그 놀라운 성의에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계성 가족 여러분!

지난 10월 13일 오전 11시에는 모교 본관 4층 도서관 옆에 꾸민 계성 연혁관의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동창회 관계자, 학교관계자, 미국서 온 동문, 모교의 자매결연 외국학교 관계자 그리고 장차 100주년을 맞게 되는 타 학교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 날 100년을 이어온 계성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동영상과, 오늘날의 계성이 있기까지 헌신했던 관계자들과 선배님들의 훌륭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훗날 후배들이 보기에 조금도 손색없는 선배의 모습으로 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이런 생각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저와 같은 생각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또한 13일 오후 3시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계성 100주년 기념식행사 역시 저에게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던 피로와 그 간의 염려를 한꺼번에 불식시키는 감동이었습니다. 4,500여명의 참석자도 그러했지만 진행되는 여러 행사들 역시 계성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세련됨과 그 웅장함으로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자리에 함께했던 김범일 대구시장이나 신상철 대구시 교육감으로부터도 '정말 계성이 아니면 누구도 흥내 낼 수 없는 행사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일 저녁 인터볼고 호텔에서 있었던 만찬에서도 모교와 자

매결연을 맺은 순천 매산고 총동창회장은 '우리도 장차 몇 년 뒤에 100주년을 맞는데 오늘의 행사를 보니 과연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나하는 걱정이 앞섭니다.'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도 그러한 칭찬이 과장된 것이거나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사와 칭찬의 말은 결코 제가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간 행사를 준비해 온 관계자를 포함해 계성인 모두가 들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는 이 일에 대해 분명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모든 것들을 통해 볼 때 우리 계성은 분명히 살아 있으며 역동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서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100년을 매듭짓는 일을 완수하는 행운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갈 주춧돌을 놓는 임무도 부여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힘을 합하면 앞으로의 100년 또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질 것이며 그 첫 단추는 동창회 장학재단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계성 가족 여러분들이 보여 주신 관심과 협조에, 이 지면을 빌어 다시금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사랑합니다.

박 성 대  
(38회·총동창회장)

## 달리고... 뭉쳐서 하나된 계성인 축하 공연, 동문가족 뜨거운 호응

앞으로 계성이 영원할 수 있도록 합시다.'며 즐거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 대회에는 전날 있었던 100주년 기념식과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 지부에서 버스 6대를 동원해 왔는가 하면 각 지부별로 많은 동문들이 참가하여 대회가 열렸던 장소가 더욱 좋아 보였다.

총동창회에서는 대회 시작을 알리는 100발의 불꽃을 쏘아 올려 분위기를 띄웠으며 삼성라이온스 야구단과 동양 오리온스 농구단의 치어리더를 동원해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응원을 주도하도록 준비하여 경기보다는 응원에 열중하는 기수들도 많았다. 대회에 참가해 일찍 입상권에 들지 못한다는 것이 판가름난 기수들은 예년에 보면 서둘러 천막을 거두고 대회장을 떠났으나 올해 체육대회는 경기 후 바

로바로 시상이 이어졌음에도 많은 동문들이 남아 있었다. 이는 3시 이후부터 축하 공연이 열린다는 것을 본부에서 널리 홍보한 때문이라 여겨졌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자 모든 시상이 끝나고 운동장 한쪽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개그맨 김샘의 사회로 축하 공연이 시작되었다. 구수한 입담을 통해 관중들을 사로잡은 사회자가 초대 가수 태진아를 소개하자 천막 속의 그늘에 앉아 있던 수많은 동문의 부인들이 무대 근처로 뛰어나와 열광했다. 태진아는 노래 세곡이 끝난 뒤 '나는 보통 한자리에서 세곡을 불러요. 아침에 출발하려는데 왕종근이가 전화를 했어. 나와는 나이가 같아 친구로 지내는 데 그 왕종근이가 계성 출신이라면서. 맞아요? 내게 말하기를 모교에 가니까 노래



▲ 개교 100주년기념 총동창 가족 체육대회가 계명문화대학 운동장에서 열렸다.

한 다섯 곡은 불러줘 하고 부탁했어요. 아, 친구 부탁인데 들어 줘야지요.'하며 두곡을 더 부른 뒤 앵콜까지 받아 노래를 부른 뒤 무대를 내려갔다.

이어서 치어리더들의 공연과 밸리댄스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동문들이 서서히 무대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부인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그 뜨거운 피약에도 아랑하지 않고 무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동문들을 바라보며 부인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공연은 가수 김혜연의 무대를 마지막으로 끝이 났고, 가을 저녁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체육대회가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

체육대회 성적은 다음과 같다.

### ■ C.B팀

▷종합성적 : 우승-55회, 준우승-57회, 3위-54회

▷종목별성적 : 줄다리기 : 1위-57회, 2위-55회, 3위-54회, 3위-52회, 57회, 혼성 2인3각 계주 : 1위-57회, 2위-54회, 3위-55회, 크로케골프 : 1위-54회, 2위-56회, 3위-51회, 등반 : 1위-55회, 2위-53회, 3위-54회, 테니스 : 1위-48회, 2위-51회, 3위-53회, 바둑 : 1위-55회, 2위-54회, 3위-53회

### ■ O.B팀

▷종합성적 : 우승-65회, 준우승-64회, 3위-60회

▷종목별성적 : 줄다리기 : 1위-65회, 2위-61회, 3위-60회, 64회, 발배구 : 1위-64회, 2위-60회, 3위-59회, 65회, 67회, 혼성 2인3각 계주 : 1위-60회, 2위-61회, 3위-64회, 등반 : 1위-60회, 2위-63회, 3위-65회, 테니스 : 1위-67회, 2위-64회, 3위-65회, 바둑 : 1위-59회, 2위-58회, 3위-60회, 64회

### ■ Y.B팀

▷종합성적 : 우승-72회, 준우승-71회, 3위-70회

▷종목별성적 : 줄다리기 : 1위-70회, 2위-72회, 3위-71회, 73회, 배구 : 1위-72회, 2위-74회, 3위-70회, 75회, 78회, 400m 계주 : 1위-72회, 2위-70회, 3위-71회, 등반 : 1위-71회, 2위-70회, 3위-69회, 75회, 테니스 : 1위-69회, 2위-72회, 3위-68회, 바둑 : 1위-71회, 2위-72회, 3위-69회, 축구 : 1위-69회, 2위-72회, 3위-71회, 76회

글·한학동(64회)



▲ 총동창 가족 체육대회 줄다리기 모습.

#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동참해 주신 동문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며 6만 동문 모두가 10구좌(100,000원) 이상 출연하여 모교 개교100주년을 맞아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고 그 이름을 글로벌화 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 장학기금 납부자

(2006. 8. 1 ~ 2006. 10. 31까지 입금 내역임) (단위 : 원)

성명	기수	납입금액	성명	기수	납입금액
이병구	53	100,000,000	유완석	59	200,000
양덕준	56	50,000,000	배성찬	60	200,000
김무영	49	10,000,000	장성훈	23	100,000
이시원	50	10,000,000	김상익	44	100,000
윤동한	52	10,000,000	유효민	46	100,000
이승한	52	10,000,000	임무광	48	100,000
성부홍	46	3,000,000	한영기	49	100,000
우두현	47	3,000,000	김수호	52	100,000
윤종훈	53	3,000,000	이상달	53	100,000
김재희	60	3,000,000	이형환	53	100,000
변동길	38	1,000,000	손장우	53	100,000
최규석	38	1,000,000	이윤식	54	100,000
박규권	38	1,000,000	이창동	54	100,000
변병삼	38	1,000,000	김종기	56	100,000
이성환	38	1,000,000	김정길	56	100,000
전병직	42	1,000,000	김희국	58	100,000
소흥렬	42	1,000,000	김동섭	60	100,000
김성수	46	1,000,000	이경국	65	100,000
곽병만	50	1,000,000	권주수	65	100,000
위재곤	54	1,000,000	제갈영순	66	100,000
김대환	55	1,000,000	서재용	69	100,000
김병일	56	1,000,000	윤재보	52	50,000
윤석용	58	1,000,000	박지주	54	50,000
반용음	63	1,000,000	31회동기회		1,000,000
김국언	47	500,000	36회동기회		300,000
김선동	54	500,000	38회동기회		500,000
강상학	56	500,000	재경38회동기회		1,000,000
배태덕	52	300,000	43회동기회		4,000,000
정명수	55	300,000	46회동기회		7,000,000
김재복(서울)	55	300,000	49회동기회		7,000,000
박춘규	58	300,000	53회동기회		10,000,000
성우식	44	200,000	64회동기회		10,000,000
우세홍	46	200,000	65회동기회		10,000,000
정수열	52	200,000	영덕지부		500,000
김무달	59	200,000	경주지부		1,000,000
총합계		274,200,000			

## 100주년 사업 부담금

(단위 : 원)

기수	납입금액	기수	납입금액	기수	납입금액
27		48	500,000	69	
28		49	500,000	70	1,000,000
29		50	500,000	71	1,000,000
30		51	500,000	72	1,000,000
31		52	1,000,000	73	1,000,000
32		53	1,000,000	74	500,000
33		54	1,000,000	75	500,000
34		55	1,000,000	76	
35		56	1,000,000	77	
36	100,000	57	1,000,000	78	
37		58	1,000,000	부산지부	3,000,000
38	100,000	59	1,000,000	울산지부	3,000,000
39		60	1,000,000	시카고지부	500,000
40	200,000	61	1,000,000	뉴질랜드지부	500,000
41	300,000	62	1,000,000	구미지부	500,000
42		63	1,000,000	울진지부	300,000
43		64	1,000,000	인천지부	1,000,000
44	300,000	65	1,000,000	안동지부	1,000,000
45	300,000	66	1,000,000	서울지부	10,000,000
46	300,000	67	1,000,000		
47	500,000	68			
총합계		44,900,000			

## 회보구독료 납부자

(2006. 8. 1~2006. 10. 31까지 입금내역임)

### ▷100,000원

이교삼(48회), 윤동한(52회), 이윤식(54회)  
이철수(56회), 장준영(64회), 무명(2명)

### ▷50,000원

남재만(44회), 문준웅(46회), 이송국(50회)  
김석준(56회), 김무달(59회), 배성찬(60회)

### ▷30,000원

김호영(32회), 강의경(50회), 김수호(52회)

갈병조(52회), 김찬(53회), 이석건(53회)  
김홍기(53회), 하제대(55회), 김태수(56회)  
유시경(57회), 김영조(57회), 임경열(60회)  
김경준(61회), 이동희(64회), 권동혁(66회)  
이승두(73회)

### ▷20,000원

이승남(44회), 천진호(44회), 조태환(45회)  
임무광(48회), 백창곤(50회), 서정태(53회)  
조해룡(53회), 김태영(54회), 서흥덕(56회)  
장재호(56회), 장영진(57회), 박임용(57회)  
배기열(57회), 이성하(57회), 백명현(58회)  
장상현(60회), 임종익(63회), 김찬욱(64회)

## 장학기금 및 회보 구독료 기별 납입금 내역

(2004. 8. 1 ~ 2006. 10. 31까지 입금 내역임) (단위 : 원)

기별	장 학 금			회 보 구 독 료	
	기별부담금	개인	인원	금액	인원
23		400,000	4	60,000	4
26				50,000	1
27		5,000,000	1		
29	300,000	1,000,000	1	30,240	3
30	300,000	200,000	2		
31	1,000,000	200,000	2	30,000	2
32	300,000	300,000	1	40,000	2
33	1,500,000	300,000	2	10,000	1
35	200,000	150,100,000	2	160,000	6
36	300,000	100,000	1	130,000	11
37		15,100,000	2	130,000	4
38	1,600,000	6,600,000	8	80,000	6
39	1,000,000	900,000	4	580,000	37
40		7,400,000	9	230,000	9
41	5,000,000	11,245,000	5	80,000	6
42	5,000,000	16,600,000	13	360,000	18
43	9,000,000	400,000	3	70,000	3
44	5,000,000	27,830,000	27	730,000	31
45	7,000,000	47,930,000	15	470,000	26
46	7,000,000	8,700,000	15	240,000	17
47	7,000,000	42,050,000	11	350,000	20
48	7,000,000	1,750,000	7	260,000	9
49	7,000,000	11,950,000	12	340,000	14
50	10,000,000	51,700,000	8	620,000	21
51	10,000,000	20,900,000	8	730,000	49
52	10,000,000	142,050,000	22	690,000	36
53	10,000,000	115,000,000	19	1,000,000	53
54	10,000,000	3,350,000	12	910,000	57
55	3,000,000	2,600,000	13	430,000	28
56	10,000,000	68,830,000	20	1,110,000	53
57	10,000,000	290,000	2	510,000	32
58	10,000,000	12,640,000	11	870,000	29
59	10,000,000	1,150,000	7	470,000	26
60	10,000,000	4,920,000	17	740,000	51
61	10,000,000	3,210,000	4	270,000	20
62	10,000,000	100,000	1	410,000	15
63	10,000,000	1,620,000	8	540,000	40
64	10,000,000	12,280,000	14	860,000	49
65	10,000,000	300,000	3	250,000	18
66		1,000,000	6	300,000	18
67		100,000	1	140,000	5
68		600,000	4	400,000	29
69		650,000	8	490,000	23
70	7,000,000	300,000	4	120,000	6
71	7,000,000	570,000	7	370,000	27
72		240,000	1	100,000	8
73		130,000	2	120,000	8
74	7,000,000	200,000	3	30,000	3
75				60,000	3
76				10,000	1
78		50,000	1	20,000	2
원주지부		400,000	13		
부산지부					
재천지부		400,000			
포항지부		3,000,000			
영천지부		1,000,000			
시카고지부		2,000,000			
구미지부		500,000			
영덕지부		500,000			
경주지부		1,000,000			
무명		140,000	3	535,000	33
계	239,500,000	809,775,000	372	17,535,000	973

윤치호(64회), 김주원(68회), 김국진(68회)  
이재곤(69회), 이희재(75회), 무명

### ▷10,000원

장성훈(23회), 이승하(36회), 김상규(38회)  
배인출(39회), 허동원(39회), 성기래(39회)  
김재기(42회), 서진기(42회), 한태철(43회)  
신종인(44회), 이기형(44회), 박승욱(45회)  
박의조(46회), 김병희(51회), 김국호(51회)  
윤월보(52회), 문희태(52회), 김석규(53회)  
이형환(53회), 최진영(53회), 이창동(54회)  
박지주(54회), 서재권(54회), 이지형(54회)  
이응재(54회), 전석진(54회), 김규수(55회)

이철용(55회), 손택곤(56회), 김종기(56회)  
류대창(57회), 허만진(58회), 김영남(58회)  
최홍식(59회), 서성(60회), 김한수(60회)  
김성열(60회), 박상준(61회), 조태현(61회)  
김진규(61회), 정영진(62회), 최철(63회)  
권태순(63회), 전갑득(63회), 송준산(64회)  
정종립(64회), 서상근(66회), 이강일(68회)  
김동창(68회), 김창수(69회), 김종율(72회)

### ▷5,000원 무명

계105건 2,475,000원(누계:17,535,000원)  
※혹 착오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총동창회 역대 회장 프로필

## “계성학교 100년 총동창회여, 영원하라.”

1911년 제1회 졸업생 12명을 배출한 모교는, 그로부터 해마다 푸른 언덕에서 신학문과 기독교 계성의 정신으로 무장된 계성인을 사회로 보내었다.

초창기 '간친회'란 이름의 동창회는 교사,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그리고 관공서의 주요 인사와 유지가 함께 참석하여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 하루를 즐기는 축제의 자리였다.

졸업생은 다음 해의 동창회에 참석하여 근황을 알리고, 간친회에 참석하였으며, 재학생과 승부를 떠난 축구, 야구 경기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동창회는 독자적인 조직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간헐적이고 부정기적으로 동창회란 이름의 모임이 있었다.

1960년대까지 동창회는 독자적인 행보 대신 학교에서 운영하였고 교장은 자동

으로 동창회장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신도환 회장 당시 동창회는 제대로 골격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친목회 형식의 각 지부와 동기회를 조직을 갖춘 모임으로 창립하도록 권고하였고 LA, 시카고를 비롯한 해외지부도 결성되었다. 체육대회, 모교 방문, 동호인 활동, 각 지부와 연계 사업, 모교 지원 사업, 장학금 전달 등 본격적 동창회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LA올림픽, 서울올림픽에서 유도 금메달은 모교와 동창회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김용태, 신성택 회장이 취임하면서 동창회는 그 위상에 걸맞는 조직과 활동으로 한 단계 더 올려졌으며, 특히 박성대 회장으로 이어지면서 6만 동문에 걸맞는 내실있는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명부 발행, 회보 발간, 신년 교례회, 장학재단 설립 등을 통해 새로운 100년 동창회를 바라보고 있다.



## ◆1대 현 거 선 (5대 교장)

• 1931년~1933년 • 1934년~1941년

1893년 11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출생. 1902년 미국 오크피아주 오크피아 중학교를 마치고 1915년 워싱턴 대학을 졸업했다. 1918년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조선 선교사로 임명받고 1920년 10월 계성학교장에 취임하였다. 교장재직중 일제의 억압하에서도 정의와 자유주의를 주창했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계성정신을 강조했다.



## ◆6대 이 성 행 (27회)

• 1970년~1972년

경남 창원 출생. 모교를 졸업하고 1939년 세브란스 의전에 입학한 뒤 대구 동산병원 인턴을 거쳐 1954년부터 4년간 미국 George Washington대학과 Pittsburgh대학에서 흉부외과 전공, 한국인 최초로 1961년 심장개심술을 경북의대병원 수술실에서 성공시킨 기록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한국심장재단 이사장으로 의료계에 더 큰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 ◆2대 김 석 영 (6대 교장)

• 1941년~1944년

함경북도 출생으로 1934년 3월 경성의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진주사범학교에 재직중 한국 교회와 미국 선교회에 신망이 두터웠던 송창근 목사의 제안으로 학교장에 내정되었다. 1941년 4월 조선 총독부 사범학교 교무 자리에서 물러나 1941년 5월 계성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 ◆7대 신 도 환 (29회)

• 1973년~1988년

1922년 경북 의성 출생. 모교와 일본 명치대학 법과를 졸업, 동경대학과 콜롬비아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모교에서 6년간 체육교사로 봉직, 계성 유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대한반공청년단장, 제4, 8, 9, 10, 12대 국회의원, 신민당 총재를 역임, 대한체육회장서리, 대한유도회장을 역임하였고, 특히 유도 10단으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1973년부터 15년간 총동창회 회장을 역임, 동창회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1991년 회고록 『천하를 준다해도』를 출간했다.



## ◆3대 신 태 식 (18회)

• 1946년~1947년

1909년 1월 21일 경북 청송군 출생. 3·1만세 후 신식 교육에 눈을 뜬 부친에 의해 계성학교에 입학, 1930년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36년 일본으로 유학하여 동북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모교 교사로 근무. 해방 직후 36세의 나이로 교장이 되었다. 이후 평생을 학교터 매입, 교사 신축, 시설 정비, 기숙사 운영, 교사연구실, 교직원 사택 마련, 재단의 사업체 운영 등으로 모교에 헌신하였다. 인물 전기 서적인 『동산 신태식』이 1999년 발간되었다.



## ◆8대 김 용 태 (41회)

• 1988년~2002년

1951년 모교 졸업. 1958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74년~1975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Nieman 연론 연수. 1970년~1980년 조선일보사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역임하였다. 11대~14대 국회까지 4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1982년~1985년 민정당 대변인, 국회재무위원장, 예결위원장, 1992년~1993년 민자당 원내총무를 거쳐 내무부 장관으로 발탁됐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선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 ◆4대 김 정 오 (4회)

• 1949년~1955년

1911년 기독교 경명소학교를 졸업, 그해 모교에 입학. 1915년 3월 모교 4회를 졸업, 마산 창신학교와 고향 경명학교에서 교사를 지냈고, 서울 연희 전문 학교 상과를 2년 수료. 신설되는 약학교(약학 대학 전신)에 재학중 1919년 만세사건에 학교 대표로 검거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6개월 옥고를 치른 후 재입학 제2회로 졸업. 1921년 모교 헨더슨 교장의 특명으로 모교 교사가 되어 화학과 생리학을 가르쳤다. 1931년부터 60여년 동안 동창회 간사, 총무, 회장, 이사, 재단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 ◆9대 신 성 택 (45회)

• 2003년~2004년

서울대 사범대학 졸업, 서울대 사범대학원을 수료한 후 1963년 제16회 고등고시에 합격, 1964년 공군법무관을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 서울형사지방법원 원장, 대법원 대법관 등을 역임. 현재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계성출신 최초의 대법관이자 행정소송의 해박한 이론가로 잘 알려져 있다.



## ◆5대 손 인 식 (2회)

• 1933년~1934년 • 1955년~1970년

1894년 5월 경북 성주에서 출생. 1913년 모교를 졸업하고 1919년 광주 순일학교 교감으로 재직중 독립만세운동 사건으로 1년6개월 동안 대구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루었고 1931년 대구 의학 강습소(현,경북의대) 4년제 졸업. 서울 세브란스 의전에서 1년 수련. 1932년 대구 동산병원 내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1968년 경북 성주에 금성 고등 공민 학교를 설립하였다. 대구 YMCA 이사장, 대구 동산병원 이사장, 경북의대 동창회장, 경북의사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 ◆10대 박 성 대 (38회)

• 2005년~현재

경북 영덕 출생. 1961년 영남대 상대를 나와 동아건설에 입사한 것을 계기로 평생을 건설업에 종사하여 성공한 기업인으로 꼽힌다. 1992년 3월 동아건설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같은 해 4월 (주)공영토건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회사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995년 (주)공영토건 회장에 취임, 현재 (주)대동주택 명예회장으로 있다. 2005년 10월 순천향대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0년~현재 '월간 경제풍월'지에 건강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계성장학재단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자랑스러운 계성10인

학교법인 계성학원에서는 개교 100주년을 맞아 '자랑스러운 계성 10인'을 선정 기념식장에서 발표했다.

종교, 교육, 정치, 사회, 예술, 체육 부문을 총망라하여 선정된 10인은 설립자 아담스 선교사를 비롯하여 김성재(교육자), 백남채(독립운동가·사회운동가), 박태준(음악인), 현제명(음악인), 강신명(목회자), 신태식(교육자), 김동리(문학인), 박목월(문학인), 신도환(정치인·체육인) 등이다.



### ◆설립자 아담스 (James E. Adams)

1867년 5월, 미국 캔사스주 도비지에서 출생, 그 곳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1889년 캘리포니아대학을 졸업했다. 1894년 5월 인디애나주 매코믹 신학교를 졸업, 그 해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조선 선교사로 임명받고 1895년 봄 부산에 도착, 1897년 대구로 옮겨 선교부를 맡았다. 1923년 대구를 떠날 때까지 27년간에 걸쳐 대구읍교회(제1교회), 대남남자소학교, 계성학교등을 창립하였다.

기독교 선교가 목적이었지만 배움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청소년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배움의 길을 열어 주기로 결심했다. 이역만리 바다를 건너와 이 땅에 기독교 복음과 신학문을 가르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다.



### ◆목회자 강 신 명 (18회)

1909년 경북 영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1934년 평양 숭실전문학교 영문과를 졸업, 1936년 1월부터 평양 서문밖교회 전도사로 목회자의 길을 걸었으며 1938년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 그해 8월 선천남교회 목사로 시무했다.

서울 새문안교회는 한국 최초의 교회로 강 목사가 평생을 시무한 곳이었고 교인들도 자상함과 인자함을 갖춘 아버지나 할아버지 같은 목회자로 기억하고 있다. 1948년 서울 동흥중학교 교장, 1954년 숭실대학, 1959년 계명대학, 1961년 연세대학 재단이사를 역임했으며 그 뒤 숭실대학교 총장, 연세대학 재단이사장 서울 장로회신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우리나라 종교계 및 교육계에 이바지한 공은 실로 크다 할 것이다.



### ◆교육자 김 성 재

1892년 출생, 일제 말기 학교가 경영난에 처했을 때 전 재산을 회사, 학교법인 계성교육재단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당시 미국 북장로회 교회의 보조로 경영되어오던 학교는 운영상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는데 일제의 간섭과 탄압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때 북장로회 교회 관리에 속하는 교지·교사·부속건물 등 학교 재산을 인수하고 별도의 재단법인을 조직, 공산중학교란 교명의 학교를 설립하였다.

그의 평생의 포부와 이념, 그리고 용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본 당국은 기독교 학교인 계성을 없애려 하였으나 반대로 학교는 위기에서 벗어났다.



### ◆교육자 신 태 식 (18회)

1909년 1월 21일 경북 청송군 안덕면 북동에서 신경한 공의 2남 4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나 3·1만세 후 신식 교육에 눈을 뜬 부친에 의해 계성학교에 입학, 평생을 계성과 인연을 맺었다. 1930년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36년 일본으로 유학하여 동북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모교 교사로 근무. 해방 직후 36세의 나이로 교장이 되었다.

이후 평생을 학교터 매입, 교사 신축, 시설 정비, 기숙사 운영, 교사연구실, 교직원 사택 마련, 재단의 사업체 운영 등으로 모교에 헌신하였다.

계성인들에게 자유, 민주, 자주 정신을 일깨워 오늘의 100년 계성을 이룩하였으며, 인물 전기 서적인 『동산 신태식』이 1999년 발간되었다.



### ◆독립운동가·사회운동가 백 남 채 (3회)

경북 경산 출생, 모교를 졸업하고 1914년 중국 북경대학에 유학 중 이시영 등과 독립운동에 가담하였고 졸업 후 귀국, 1918년 모교 교사로 근무했다.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이갑성과 제일교회에서 은밀히 만나 경상도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의 연락 책임자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 당국의 예비검속에 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광복되자 과도 미군정 당시 내무국장 입법위원을 거쳐 제헌국회의원을 역임, 건국 사업에 온 힘을 다하는 한편 대구상공회의소 결성, 조양회관 건립, 초창기 대구YMCA 주도 등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힘을 다했다.



### ◆문학인 김 동 리 (21회)

1913년 경북 경주에서 출생한 김동리는 1930년 본교에서 2년 수료하였다. 서정주, 박목월, 김달진 등과 교류하면서 193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1935년 중앙일보,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각각 소설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1947년 해방 직후의 혼란기에 '청년문학가협회'를 창립했으며, 1954년 예술회원, 1955년 서라벌대학 교수, 1969년 한국문학이사회, 1972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장, 1981년 예술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순수문학과 신인간주의 문학사상으로 일관, 우리 민족문학을 지킨 대표적 인물이며 노벨문학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다. 「실존무」 「등신불」 「사반의 십자가」 등의 작품이 있으며 경주에 '동리·목월 문학관'이 있다.



### ◆음악인 박 태 준 (5회)

1900년 대구에서 출생. 모교를 졸업하고 평양 숭실전문학교로 진학. 미국 터스칼럼대학, 미국 웨스트민스터 음악대학을 수학하였다. 귀국하여 숭실전문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1945년 오라토리오 합창단 협회장 겸 합창지휘자로 음악 활동을 시작하였다.

연세대 음대 교수로 근무하였고 1964년 연세대 음대학장, 예술원 회원이 되었으며 후학 양성과 한국 음악계에 큰 업적을 남겼다.

1986년 12월 3일 모교와 동창회가 후원한 박태준 박사 추모음악회가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2001년 4월 15일 대구 달서구 월광수변공원에 「박태준 흉상」이 제막되었다.



### ◆문학인 박 목 월 (23회)

1916년 1월 경남 고성에서 출생, 본교를 23회로 졸업했다. 재학시절부터 동요에 재능을 보여 「어린이」 「신가정」 등에 작품을 발표했으며, 1939년 정치용의 추천으로 『문장』지에 「길 처럼」 「산그늘」로 등단했다.

그 후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1946년 조지훈, 박두진과 함께 『청록집』을 발간하였고, 1957년 한국시인협회를 창립하여 전후의 혼란기에 우리 나라 시문학을 정립, 발전시켰다.

홍익대학, 한양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후진을 양성했으며, 1973년 시 전문지 『심상』을 창간하며 많은 중견 시인을 배출하였다. 「계성찬가」는 계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

어 전 계성인이 읽고 감동하는 작품이다.



### ◆음악인 현 제 명 (8회)

1903년 1월 대구에서 출생, 모교를 졸업하고 평양 숭실전문학교에서 피아노, 바이올린을 배우며 합창단 활동을 겸하였다. 1923년 숭실전문을 졸업하고 전주 신흥학교에서 음악 교사를 지낸 뒤 미국에 유학, 1928년 시카고 건음악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 연희전문학교 음악부 주임으로 합창부, 관현악부를 조직하고 연주회 강습회 등을 통한 음악 보급에 힘썼다. 1933년 조선음악가협회를 창설, 해방 후 서울대학교 초대 음대 학장이 되었다. 1953년 한국음악가협회를 조직하고 1954년 예술원 종신회원이 되었다. 1957년 시카고음악대학에서 음악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작품으로 오페라 「춘향전」

가곡 「고향생각」 「그집 앞」 「희망의 나라로」 등이 있다.



### ◆정치인·체육인 신 도 환 (29회)

1922년 경북 의성에서 신증업 공과 지남이 여사의 8남매 중 막내로 출생 하였다. 모교와 일본 명치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동경대학과 콜롬비아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모교에서 6년간 체육교사로 봉직, 계성 유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대한반공청년단장, 제4, 8, 9, 10, 12대 국회의원과 신민당 총재를 역임하면서 우리 나라 정치에 큰 획을 그었으며, 대한체육회장서리, 대한유도회장을 역임하였고, 특히 유도 10단으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1973년부터 15년간 총동창회 회장을 역임, 동창회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1991년 회고록 『천하를 준다해도』를 출간했다.



# 개교100주년기념 계성의 날 기념식

2006년 10월 13일 오후 3시 대구 실내체육관에서는 학교법인 계성학원과 계성학교 총동창회에서 후원하고 계성유·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계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계성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개교 100주년 행사를 위해 몇 개월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되었던 모든 행사들이 13일 오후 3시가 되자, 숨 가쁘게 돌아가는 현장과는 달리 자신들의 순서를 숨죽이며 기다렸다. 김재현(59회) 고등학교 교감의 사회로 출발한 기념식은 정인표(56회)고등학교 교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기념예배가 시작되자 계성동문 100인 관현악단의 반주에 맞추어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참석자 4,500여명은 힘차게 부르며 계성 개교 100주년의 뜻을 함께 새겼다.

신후식(17회) 목사의 메시지 선포에 이어 국민의례, 연혁보고가 끝나자 김태동 법인 이사장의 자랑스러운 계성인과 특별 공로 계성인 선포가 있었다. 자랑스러운 계성인에는 안의와(설립자), 김성재(초대 이사장), 백남채(3회, 독립운동), 박태준(5회, 음악), 현제명(8회, 음악), 신태식(18회, 교육), 강신명(18회, 종교), 김동리(21회, 문학), 박목월(23회, 문학), 신도환(29회, 체육)이 선정되었으며, 특별 공로 계성인에는 신후식(17회, 종교), 김용태(41회, 정치)가 선정되었으며, 법안에서는 이들 12명의 이름으로 총동창회에 12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할 예정이다. 이어서 신후식(101세)선배와 이성주(17회, 100세)선배에 대한 장수 계성인상이 시상되자 참석자들은 힘찬 박수 갈채를 보내기도했다. 고등학교 정인표 교장은 기념사를 통해 「계성학교는 영남지역 최초의 중등 교육기관으로

서 구 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민족 정기를 이끌어가는 선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각계각층에 지도자를 뛰어난 지도자를 배출해왔다」며 “10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잔치는 100살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첫 해가 되었음을 알리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빈으로 참석한 김범일 대구시장, 신상철 교육감의 축사에 이어 미국 북장로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루이스 데이비스 장로는 「일제의 강점기에 설립된 계성학교는 전쟁을 겪으며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훌륭하게 성장해 왔으며 이를 통해 주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신념을 주셨습니다. 계성학교의 졸업생들은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두 나라의 장로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미국 북장로회를 대신하여 100년을 맞는 계성학교에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고 했으며, 신일회 계명대학교 재단 이사장은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계성이 있기까지 보이지 않게 염려하고 기도해 주신 설립자 이하 교육에 헌신했던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100년을 축하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100년이 갖는 역사성을 되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개혁과 봉사 두 가지가 계성의 불변한 정신입니다. 우리 계성인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개혁하고 인류와 역사에 봉사하며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함께하길 바랍니다.」고 했다.

또한 박성대 총동창회장은 「대선배이신 신후식, 이성주 두 분을 모시고 오늘 행사를 하게 된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함께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하며 참석자들을



▲ 대구실내체육관 기념식장 모습.

둘러보며 특유의 시원한 목소리로 말하며 장학금에 대해서는 「장학금이 모여드는 것은 계성의 뿌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계성학교와 후배들을 사랑하는 때문입니다. 앞으로 50억을 만들어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매년 개교기념식 때 있어왔던 근속자들에게 대한 근속상이 수여되었고 교가 제창에 이어 이어진(27회, 전 계성고등 교장) 목사님의 축도로 행사가 끝이 나고 이 행사 후 같은 자리에서 축하 음악회가 열렸다.

모교에서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정원각선생(63회)의 지휘로 100인 동문 관악단이 「농촌의 아침」과 「신나는 디즈니 메들리」를 연주했고, 유치원에서는 원아들이 「꿈을 향하여」란 무용을 선보여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의 환호를 받았는데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원아들의 귀여운 동작을 따라하며 함께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초등학교 관현악단에서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도레미 송」을 연주하자 중학교에서는 「날 사랑하심」을 합창으로 들려주었다.

또한 바리톤 김병호(64회, 창신대)교수가 「벚노래」를, 소프라노 이화영(계명대)교수가 「투나잇」을 독창한 뒤 「오 솔레미오」를 소프라노/바리톤 듀엣으로 연주해 관중들의 갈채를 받았다. 뒤 이어 동문 관악단의 타악기 앙상블 「계성의 비상」과 전현구(57회, 한국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감독)동문의 지휘로 모리세이의 「조곡 백년제」, 쇼스타코비치의 「월츠 2번」이 관악합주로 연주 되었고 이 관악반주에 맞춰 베르디의 「개선행

진곡 「이 고등학교 김대웅선생의 지휘로 500명 합창단에 의해 연주되면서 음악회의 대단원이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태 전 내부부장관(41회), 장영철 전 노동부장관(42회), 신성택 전 대법관(45회), 이강철 대통령 정부특보(53회) 등 여러 동문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계성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호주 고스포드고, 중국 상해 조양중학교, 순천 배산고를 비롯해 2008년 100주년을 맞는 마산 창신고에서 100주년 행사를 축하하기위해 또는 견학하기위해 참석했다.

한편, 이 날 저녁 인터불고호텔에서는 법인 김태동 이사장이 주최하는 「100주년기념 내빈 초청 만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법인 산하 계성유·초·중·고등학교관계자, 동창회 관계자 및 동문 인사, 미국 북장교회 대표 그리고 내·외국의 자매결연학교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여 이날 행사를 축하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미국 장로교 총회 세계 선교회 대표로 참석한 김인식 목사는 계성이 이루어놓은 많은 업적을 열거하며 「새로운 전통과 아름다운 이상을 실현하여 「계성의 정신은 영원히」라는 교가를 계속 부를 수 있기를」축원했다. 김용태 명예회장은 「특별 공로상을 받고 보니 쑥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개인으로는 영광입니다만, 과연 계성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나 회의가 듭니다.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계성의 발전에 도움이 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었다.

글 · 한학동(64회)



▲ 타악기 앙상블 연주모습.

청정한 무공해 L.P.G(프로판, 부탄)연료 신속·안전하게 공급하여 드립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우리는 안전!을

판매합니다.

**和成가스 株式會社**

代表理事 會長 (進胡) 金 雨 洪 (45회)

- 국제로타리 3700지구 2003~04년도 총재
- 가락 대구광역시 종친회 명예회장
-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창회 회장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120-1번지

TEL:(053)565-0221~3 FAX:(053)558-5566

직통전화:(053)565-2288



## 100주년 기념사업

## 「계성 100년사」 발간

체제 내용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손색 없어. 화보집도 별책 발간  
어제의 계성100년, 오늘의 계성, 다가오는 계성100년을 가늠해

모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하나로 『계성 100년사』 발간 계획을 수립한 것은 2004년도 부터였다. 이번 100년사의 편찬 발간은 단순히 지난 100년 동안의 계성 역사를 기술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계성 100년의 그 창학 정신을 새롭게 되새겨 보면서 과거의 계성, 현재의 계성,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계성 100년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제였다.

모교의 연사는 「계성 50년사」(1956년 11월 1일) 「계성 60년사-최근 10년편」(1966년 9월 1일) 「계성 80년사」(1989년 3월 1일)에 이어 1997년 8월 15일에 발간된 「계성 90년사」등의 발간 기록을 갖고 있다. 특히 90년사는 종전의 연사와 달리 '전분야를 새롭게 다시 쓴다'는 각오로 편찬 작업에 임했고 그 결과 상당한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번의 100년사는 그러한 지난날의 편찬 실적과 업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서두에서 말한 계성의 100년을 새롭게 조사 발굴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더라도 완전히 가까운 '연사'가 되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었다. 또 하나 다른 것은 화보집을 별책으로 만들어 '읽는 100년사'와 함께 '보는 100년사'가 되게 했다는 점도 종전보다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2004년도의 100년사 발간의 기본 구상은 지금까지의 90년사로 정리된 역사

를 재구성하고 최근 10년사(1997~2006)는 보다 충실히 정리 보완하며 그와 함께 편집 부분을 기획 디자인 하며 필자는 외부에 맡기고 내부에서 감수하는 형식을 갖기로 하였다. 그와 함께 지역 출판가는 물론 서울의 업체까지 포함한 여러 출판사와 발간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러나 최초 2005년 1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원고 집필 완료, 2006년 2월 출간한다는 계획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연되고 말았다. 집필자 선정이 문제였다. 외부에 맡기자니 90년사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교직원으로 하자니 수업과 학사로 집필 여건이 쉽지 않았고 결국 모교의 퇴직 교사이자 소설가인 이수남 동문에게 주요 집필을 의뢰, 승낙받은 것이 2005년 5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편찬 작업은 진행되었다.

우선 계성빌딩 8층에 <계성100년사 편찬위원회실>을 마련하고 편집위원인 초,중,고 교사는 물론 집필에 관여되는 위원에게 상시 공간을 제공하였다. 위원실에는 <계성100년사 편찬 일정>, <편찬개요>, <편집위원>, 연표, 복사기, 서류용 캐비닛, 회의용 집기, 연세대, 이화여대 100년사 등 전국의 중요 학교에서 발간한 연사, 기타 자료 참고자료 등을 비치하여 집필에 최선의 도움을 주고자 했다.

필자는 도서관을 뒤지다시피 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찾았고 선배 동문을 통해 희귀한 사진도 구할 수 있었고 지역의 교계, 학계, 정계의 인사들을 통해 100년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런 자료를 통해 이번의 100년사는 상당 부분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의 100년사가 90년사와 다른점은 초등학교, 유치원 부분을 포함했고 90년사의 내용중 상당 부분을 수정 보완, 제1, 2, 3편은 거의 새롭게 서술되었다. 특히 집필의 방향은 100년 계성 역사의 정신인 기독교 정신, 3.1정신 자주, 개혁, 봉사정신을 부각하려고 했다. 또한 학교 창립과정, 계성학보, 맥퍼슨관의 상량문, 원교장, 학교 헌법, 제3의 교가, 경비정리부, 6.25 참전학생, 피난학생, 등을 새롭게 보완하였다.

마침내 지난 10월 15일, 100년사가 출간되었다. 『啓聖百年史』와 별책『사진으로 본 계성 100년』이 그것이다. 책을 대하는 순간 가슴이 벅찼다.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집필과 감수에 참여한 이수남 선생님과 교열과 편집에 애쓴 문영배, 양영우 선생 그리고 좋은 책으로 꾸며준 다락방 여러분에게 고마운 뜻을 전한다.

▷계성 10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정인표

•위원: 김정옥, 손용식, 김재현

•편집위원: 초-권영훈, 문인규, 황재연, 중-권영배, 강정서, 안찬준, 고-김용익, 문영배, 양영우, 동문-이수남

•간사: 김용익

▷집필위원

•이수남: 제 1, 2, 3, 7, 동창회 편

•권영배: 제 2(3.1운동), 4편

•강정서: 제 5편

•안찬준: 제 6편

•권영훈, 문인규, 황재연: 제8편

▷편집위원

•김용익, 문영배, 양영우: 교정, 교열, 편집 및 「사진으로 본 계성 100년」 담당



편찬간사  
김 용 익  
(59회, 모교 교사)

## 축하 음악회 개최

개교100주년 기념식이 성대히 치러진 후 곧이어 그 자리에서 진행된 축하 음악회는 계성동문으로 구성된 100인조 관악합주단이 본인(63회, 고등학교 교사)의 지휘로 김동조 곡의 '농촌의 아침'과 이와이 편곡의 '신나는 디즈니 메들리'를 관악합주의 화려한 음색과 강렬한 사운드로 막을 올린후 곧이어 유치부 무용 순서가 이어져 남은정(유치원 교사)님의 지도로 '꿈을 향하여'라는 작품이었는데 60여명의 천사들이 내려와 춤을 추는 것 같아 보였으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초등학교 관현악순서로서 70여명으로 구성된 관현악단이 노찬석(초등학교 교사)님의 지휘로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도레미 송'을 멋있게 연주하였다. 이어진 순서는 중학교 합창으로 김정호(중학교 교사)님의 지휘로 백승남 곡의 '날 사랑하심'을 매우 은혜롭게 연주하였으며 이어서 김병호(64회, 창신대 교수)님의 바리톤 독창으로 조두남 곡의 '벚노래'가 연주되었으며 이화영(계명대 교수)님의 소프라노 독창으로 번스타인 곡의 '투나잇'을 연주 후 소프라노 바리톤 듀엣으로 카푸아 곡의 그 유명한 이탈리아 칸초네 '오 솔레미오'를 열창하여 축하음악회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이어진 연주는 이보람(90회, 계명대4년재학)님의 리더로 구성된 타악기 앙상블의 연주로 '계성의 비



상'이라는 곡을 연주하여 한층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전현구(57회 안동대 교수)님의 지휘로 관악합주가 이어져 100주년 기념 축하를 위한 선곡으로 모리세이 곡의 '조곡 백년제'와 쇼트타코비치곡의 '월츠'가 연주되었으며 마지막 곡으로는 김대용(고등학교 교사)님의 지도로 모교 재학생 500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과 베르디 곡의 '개신 행진곡'을 연주하여 계성100년의 위대함과 힘찬기상을 소리쳐 외치며 축하음악회의 피날레를 장식하였다. 그 어느 학교도 감히 흉내 내기 힘든 대규모의 100인조 관악단과 500명 합창단의 구성으로 볼 때 실로 계성의 저력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행사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정진하여 많은 예술인들이 배출되어 계성의 앞날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글·정원각(63회)

## 「계성문학」특집호 발간

모교 동문 문인들의 문학 동인인 계성문학회는 개교 100주년 특집 기념호 「계성문학」을 펴냈다.

이번 특집호에는 아담스, 김성재, 백남채, 박태준, 현재명, 김동리, 박목월, 신도환 등 법원에서 선정한 '자랑스러운 계성 10인'의 삶을 글과 사진으로 담았다.

특집1에는 <계성문화사>를 기획하여, 계성의 종교, 정치, 경제, 법조, 언론, 의료, 교육, 문학, 음악, 미술, 체육사 등을 총망라하였는데 박재천, 윤재인, 남기진, 김익환, 박용규, 이재윤, 정만진, 이수남 정원각, 박학배, 김중훈 동문등이 필자로 참여했다.

특집 2에서는 계성 정신, 원로 회고, 다시 생각나는 교장 선생님, 동문과의 만남, 그리운 얼굴, 나의 삶 나의 보람, 계성인의 오늘, 다시 50계단에 서서 등의 코너를 만들어 60여명의 각계 동문 인사들이 글을 실었다.

계성문화회 권기호 회장(경북대 명예교수)은 "근세 우리 역사의 발자취가 그렇듯이 계성학교도 태동기부터 적잖은 인고의 세월을 겪어왔다. 하지만 계성인들의 기백이 계성다운 꿈의 터전을 일궈 사회 각층에서 빛나는 인물들을 배출했다. 이러한 발자취를 정리해 본 것이 이번 특집호"라고 밝혔다.

회원 작품으로는 시인 권기호·권국명·조삼도·이재윤·이진, 수필가 장기홍·도창희·박용규·김형규·구활·이원우·홍억선, 소설 정만진·이름·엄창석 동문 등의 작품을 실었다.

한편 이번 특집호는 총 6,000여권을 발행하여 동문들은 물론 계성초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배부하였으며, 전국 각지의 공공 기관과 학교, 도서관, 문학관, 문인들에게 배부하여 계성정신을 드높였다.

글·홍억선(63회)



개교 100주년 행사 참가기

# 개교 100주년, 잔치는 이제 시작이다!



조 준 제 (47회)  
재경 동창회장

100주년 행사의 감격이 아직 열열하다. 100년이나 된 학교의 구성원이라는 게 한없이 자랑스럽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자 긍지다. 유한한 인생에서 100년이란 울타리 속에 서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

10월 13일 아침 여덟 시, 잠실운동장 앞, 장관이 펼쳐졌다. 수십 대의 관광버스가 재경 동문들을 싣고 모교를 향해 출발이다. 동문들의 얼굴은 흥시처럼 붉고 상기되어 있다. 개선장군이 되어 귀국하는 것처럼 흥분이 역력하다. 내륙간 고속도로를 택하지 않고 경부고속도로로 들어섰다. 홍보를 위해서다. 버스마다 차창엔 100주년 행사를 알리는 대형 포스터를 부착했다. 빠른 길을 버려도 모두 싱글벙글이다. 사무국장 이응재(64회) 등 집행부의 꼼꼼한 준비 또한 감

동적이다. 찬송, 기도를 미리 녹음해서 10시 정각, 전 차량에서 차내 예배를 드렸다. 백주년 행사를 위해 수 년간 준비에 올인한 재경계성동창회의 고생과 피로가 한순간에 씻겨진다.

동대구 톨게이트에 도착하니 행렬을 돕기 위한 경찰 순찰차, 오토바이가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안내를 받으며 대구 도심을 통과하는 기분이 여간 아니다. 차창 밖을 향해 황제가 된 것처럼 호령을 하고 노래를 불렀다.

오후 한 시, 드디어 모교에 도착했다. 오십계단은 더욱 고풍스런 위엄으로 우리를 맞는다. 교정 이곳저곳에 흩어져 준비한 도시락을 펼쳤다. 추억과 덕담을 섞어서 맛있게 도시락을 먹었다.

점심 식사 후 다시 승차, 성대한 행사가 준비된 대구실내체육관으로!

재학생과 동문들이 체육관을 꽉 메웠다. 1부 행사의 꽃은 자랑스런 계성인 선포였다. 한국사의 한 획을 그은 거목들이다. 현제명, 김동리, 박목월 등, 그들의 이름을 서슴없이 선포라고 부를 수 있다.

2부 행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재학생과 교직원, 동문들이 준비한 음악회다. 장중한 관악합주가 체육관을 꽉 채운다. 재통동이 유치원생의 무용으로 시작



▲ 체육대회 개막을 선언하는 조준제 재경 동창회장.

한 음악회는 베르디의 개선행진곡 관악합주로 막을 내렸다.

저녁에는 낮익은 얼굴들끼리 술자리를 잡아 맘껏 떠들고 담소했다. 우리를 키워준 어머니의 학교, 계성학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추억하고 걱정하며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대구 시내에 계성공화국이 된 듯 곳곳에서 교가가 울려 퍼지고 계성의 이름이 질펀하다.

날선 칼바람 부는 객지에서 온

친구를 반기는 고향 마을 친구의 우정은 뜨겁고 뜨겁다. 식당 아주머니마저 계성 100주년을 축하한다며 축하주를 내놓는다. 옆좌석 손님도 축하잔을 건넨다.

이튿날, 계명대 운동장에서 펼쳐진 100주년 기념 체육대회와 축하 공연. 승부보다 우정의 풍선을 맘껏 터뜨린 축제였다.

100주년 행사로 잔치가 끝난 것이 아니다. 2백년, 3백년, 천년을 향한 장중한 걸음을 내디

딘 것이다. 동문 한사람 한사람이 벽돌이 되고 거름이 될 것이다. 계성의 이름, 거기에 뿌리를 박고 있는 모든 이들이 햇빛과 같은 광채를 영원무궁 비추는 용사가 될 것이다. 허약해진 명성을 회복하고, 풀린 나사를 죄는데 동문들이 앞장서 당기고 뒤에서 밀 것이다. 100주년 행사에서 결집된 에너지가 천 년을 향해 뿜어질 것이다. 잔치는 이제 시작이다.

## 재단 출연 장학금 12억 확보 장학기금을 통해 동창회와 재단이 하나로

지난 2004년 8월 11일 오후 6시 30분 시내 그랜드 호텔 3층 소연회장에서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모교 중흥을 위한 특별 간담회가 열리바 있었다.

이 자리에서 모교 개교 100주년을 맞아 학교 평준화 이후 추락하고 있는 모교의 발전을 위해 동창회와 재단이 상호 1:1

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날 참석한 동문은 박성대 회장(38회)을 비롯 장영철(42회), 신일회(44회), 신성택(45회), 남기진(51회), 김신길(54회), 이재운(56회), 정인표(56회), 그리고 김태동 재단이사장이 참석했으며 이후 각 위원은 자주 만남을 통하여 각자의 역할을 맡아 계획을 빈틈없이 추

진하도록 실천적 노력을 아끼지 말자고 다짐했다.

특히 지난 개교100주년 기념식장에서 모교 재단에서 선정한 자랑스러운 계성10인을 발표하면서 이들 선정된 분들의 이름으로 12억을 확보, 모교 재학생의 장학기금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 지난 2004년 8월 11일 그랜드호텔에서 모교 중흥을 위한 특별 간담회 모습.

## 진영 자동차 상사

◆ 화물전문 ◆  
1t~1.8t 덤프 · 냉동 · 탭차  
크레인 · 압축 · 암물 · 각종 특장차

대표

백 학 조 (5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749번지

TEL : (053)585-8505 FAX : (053)588-5619

H.P : 011-504-2699



# 해방 이듬해 입학, 10.1사건등 격동기의 시대적 상황속에서 학창 생활을 해

39회 인터뷰를 하기 위해 김정길 사무국장과 학교를 출발하여 약속 장소인 약전골목에 있는 진성식당을 찾는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약전골목 안의 미로를 두어 바퀴 헤맨 다음에야 우리는 약속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때가 마침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되었고, 식당이 골목 안에 있어서 우리가 찾기 힘들거라 여겼는지 서정원 선생님께서 골목 입구에 나와 계시다가 우리를 반겨 주셨다.

안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니 이미 15명 정도의 선배님들께서 오셔서 답소를 나누고 계셨다. 이 날 모임에는 기자의 계성학교 은사였던 선생님이 두분 계셨는데 한 분은 우리들을 마중 나오셨던 서정원 선생님이고 또 다른 분 역시 국어를 가르치셨던 정재표 선생님이셨다. 재학시절에는 선생님이셨다. 모교에 근무할 때는 직장 동료로, 이렇게 동창회 일로 만날 때는 선배님으로 만나고 보니 그 때마다 감정이 다르지만 그래도 본 기자에게는 항상 선생님이고 또 그 모습이 가장 반가웠다.

부회장인 김수관 선배님의 사회로 우리 일행이 소개되자 「이렇게 오셨으니 동창회의 근황을 알려달라」는 선배님들의 요청이 있어 김정길 사무국장이 계성 개교 100주년 행사와 체육대회 그리고 동창회 장학재단의 현황을 소개했다. 또 선배님들은 「자랑스러운 계성인 상 수상 대상자의 선발은 어떻게 한 것이냐?」고 물으시는 등 학교 및 동창회의 일에 매우 관심을 보이셨다. 사실 연로하신 선배님들이 시내 식당에서 낮에 모임을 가진다고 하기에 그저 몇몇 분들이 모으시는 것으로 예상하고 갔던 기자는 모이신 분들의 숫자와 화기에애한 분위기에 내심 압도당하고 말았다. (나중에 헤아려 보니 참석자가 20명이나 되었다.)

식사가 나오기 시작하자 우리 일행은 39회 동기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면

서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시작했다.

예전에 계성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고 현재 동모교회 원로 장로이시며 과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서에 지도를 하고 계신다는 김수관 선배님은 「회장은 김광영이고 나는 부회장인데 총무를 하던 민병동이 작고하는 바람에 내가 총무직도 겸임하고 있어요. 39회 동기회 회칙은 이 친구가 만들었어요.」하시면서 옆자리에 앉은 서정원 선생님을 가리키셨다. 이어서 「우리 동기회의 정기 모임은 매월 27일에 하고 있는데 평소 15명에서 20명 정도 참석하고 있지요.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을 월례회 연락 후에야 알게 되었거든. 미리 알았다면 더 많은 동기들이 모일 수 있었을 텐데.」하고 아쉬워하시며 정기 모임 말고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5~6명씩 모이는 모임도 있다고 하셨다.

또, 부근에 앉아 있던 한 선배님을 소개하면서 내 아들도 계성 58회 졸업생이지만 「이 친구는 아들 둘 모두 계성학교를 졸업한 계성 가족이야.」하고 인터뷰를 해 보라고 권했다. 그 분은 고령군 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령 문화원장으로 봉사하고 계신 최상호 선배님이셨다. 최 선배님은 「큰애는 60회인데 지금 LA지부 총무를 맡고 있지요. 얼마 전 손자 결혼식이 있어 LA에 갔더니 동문들이 30명이나 참석했더군. LA 동창회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일전에 신용수 선생을 만났더니 LA 동창회가 초청하여 이인기 의원(59회 국회의원)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을 때 환대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이번에 미국 가면 꼭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작은애는 61회인데 지금 국제전선에 근무하고 있어요.」하고 아들들에 대해 말씀하시고는 「우리 고령지부에 대해 얘기하자면 중소기업협회장을 하는 유윤철이 고령 출신인데 내가 고령지부 동창회를 맡고 난 이후에 유윤철이 맡아서 열심히 해줬어. 지금



▲ 본관을 배경으로 하고 50계단에서 졸업기념 촬영을 했다. 앞줄의 그리운 은사님 모습.

도 유윤철은 고령 지부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라고 하셨다.

한편, 김수관 선배는 「우리동기들은 나이가 보통 74세에서 76세까지인데 그 중에는 권오석(전 계성학교 교장)이 79세로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이런 고령임에도 배민출이라는 친구는 포항에서 열리는 전국 노인 체육대회에 경산시 대표 탁구선수로 출전했어요.」하며 노익장을 과시하는 동기생 자랑을 하셨다.

이 때 마침 경북대학교에서 학장을 지내셨던 장기홍 선생께서 입장하셨다. 개량 한복을 차려입고 등장한 선생님은 「내 시계가 고장나 한 시간이나 늦게 가는 바람에 늦었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일찍 온다고 어깨에 힘 좀 주고 왔더니. 이거 참」하시고는 「자자. 그건 그렇고 마침 카메라를 가지고 왔으니 기념촬영을 해야지」라며 분주히 방안을 왔다갔다하시며 촬영에 열중했다.

이 때 어디선가 「모두 차렷」하는 구령이 터져 나왔고 그제서야 대화를 중단하고 모두 촬영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줘, 순간 기자는 마치 기자의 동기회 풍경을 보는 것 같아 웃음이 나왔다. 기자는 대학 시절 같은 건물에서 공부를 해서 장기홍 선생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그때는 감히 옆에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엄이 있었는데 동기생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참 다정다감했다. 장기홍 선생께서는 근황을 묻는 기자에게 「특별히 정기적으로 하는 일은 없어 다만, 대구은행에서 발간하는 대구문화라는 책에 대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연재하고 있어」라고 말씀해 주셨다.

「옛날의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는 우리들의 요청에 김수관 선배님께서 선배님들의 졸업 앨범치고는 너무 깨끗한

앨범을 하나 꺼내 놓았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한참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제작한 앨범인 듯 한데 안에 기록된 주소록에 1981년 12월 현재라고 적혀있어 그 자초지종을 들여보았다. 「우리가 1977년 12월 3일 모교방문을 했어. 그 이후 새로운 앨범을 제작하자는 의견들이 있어 만들게 된 거야. 그런데 그 때 내가 자연대 학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앨범제작 때문에 혼이 났어. 내가 학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힘이 들 정도였어.」하며 장기홍 선생은 그 때를 회고했다. 그 속에는 낱장으로 된 사진들도 있었는데 여러 선배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사진들도 뒤에 내용을 적어서 주라.」고 해서 돌려가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사진의 내용을 적어 주기도 하셨다.

학창 시절에 대해 기억 나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지요. 하고 말하자 「최상호 선배님은 나는 학교 다닐 때 53회 전국체전에 유도대표로 참가해 우승을 하기도 했어. 그 때 멤버는 김위생(유도대 학장 역임), 남이진 등이었지.」라고 했으며, 「우리 입학 동기생 중에는 삼성그룹의 전 회장이던 이병철씨의 둘째 아들 이창희도 있었고, 장택상씨 아들도 있었지.」하며 정재표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셨다.

「생각나는 선생님은 없으신가요?」하고 묻자 「한문을 가르치셨던 박곤보 선생님이 생각 나요. 선생님의 아들 박정배는 39회인데 그의 사위 셋, 조카, 질서 모두 계성 출신이야. 대단하지요. 1945년 대구시 체육대회를 계성이 휩쓸 때였지. 종합운동장에서 체육대회에 우승한 후 우리 학생들이 브라스밴드를 동원하여 트럭을 타고 학교로 오는 도중 동산파출소 앞에서 대구중학교 학생들의 습격을 받아 박

곤보선생이 다치게 되고, 다음날 대구중에 복수하려고 우리들이 학교에 모였는데 그 날 10·1 사건이 터져 버린 거야. 박곤보 선생님은 그 때 그 일이 원인이 되어 돌아가셨고.」하시며 원통해 하기도 하셨다.

장기홍 선생과 주위의 많은 선배님들은 「김이현(29회) 선생님이 대해 말하고 싶어요. 당시 방청대장이었고 후에 철도청장을 지냈던 김재현의 형인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치셨는데 발음이 일본식으로 형편 없었어. 매일 숙제를 내어 주셨는데 그 숙제를 해가지 않으면 유도장에 학생들을 불러모으시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덩치 큰 친구를 골라 엎어치기로 바닥에 매치는 거야. 그러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 효과가 만점이었지. 학생들은 사시나무 떨 듯 떨고 있었지. 나 같은 사람은 작아서 벌을 줄 때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크지 않아서 불러나가지 않았지만. 그런데 나중에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 때 영어실력들이 무척 늘었다는 거야. 요즘의 교육 방식으로만 못하지만...」하시며 웃으셨다. 이 김이현 선생이 나중에 일본 80연대에 차출되었다가 탈출을 시도하여 도주하던 중 해방을 맞았던 「학병 탈출기」의 주인공 3명 중 1명이었으며 그 당시의 상황을 책으로 저술한 것이 「학병 탈출기」라고 했다.

서울지부도 나름대로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하신 39회 선배님들은 기자가 인터뷰를 마치고 나올 때쯤, 11월 3일 국립대구박물관 주최 문화탐방을 가자는 얘기를 나누고 계셨다. 기자들의 동기들도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함께 모인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학교로 오는 내내 머리 속에 맴돌았다.

글 · 한학동(64회)



▲ 약전골목 진성식당에서의 월례회 모습.



특별기고

# 가족 9명 모두가 모교 출신, 모임마다 교가가 자연스럽게 나와 아들 낳으면 계성학교, 딸 낳으면 신명학교에 입학 시키는 것 당연히 여겨

배 재 규 (61회) · 성화여고 교목  
· 대덕성결교회 목사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잠언 1:7)

“앞에 쉴 것 비슬산이요 뒤에는 팔공산 들렸다.

푸른 언덕에 계성학교는 반공에 우뚝히 솟았네.

계성 계성 만세라. 우리의 자랑인 계성아”

이 글들을 평생, 아니 눈을 감을 때 까지 어찌 잊을 수 있을까? 나는 어릴 때부터 이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다.

나는 계성학교를 졸업한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계성학교를 졸업한 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여기리라 생각되지만 나에겐 특별한 이유가 있다.

우리 집안은 계성학교와 남다른 관계가 있다. 나의 할아버지 이신 배현식 장로님은 유학자이면서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인 분이다.

우리 성(姓)의 본은 경주(慶州)이며, 파는 분성(盆城)이다. 의성 쌍계가 고향으로 할아버지는 이 지역에서는 상당한 학식과 재물을 가진 분으로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쌍계초등학교를 세울 때 할아버지께서 학교 부지를 헌납하시어 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100년을 넘는 역사를 가진 의성 쌍계교회에서 초대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시었고, 8.15 해방후 대구에 나오시어 침산교회의 장로님으로 시무하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

나의 큰아버님께서 6.25 한국전쟁이후 모두들 천병으로 여기며 사람 같이 대우하지 않던 한센병을 치료하는 대구 애락원의 원장으로 36년간 봉사하셨고, 자유당 시절 대구 초대 시의회 의장을 지내신 배 정원장로(동부교회)이시다. 그리고 큰아버님은 당시 계성학교 육성회 회장을 하셨다.

이런 연유로 우리 집안의 가족들은 아들을 낳으면 기독교 학교인 계성학교, 딸을 낳으면 신명학교에 입학 시키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배은규(도미 42회), 배성규(목사 43회), 배창규(도미 44회), 배대웅(전 육군 중장 45회), 배상규(서거 47회) 배창규(도미 49회) 배중규( 53회) 배재규(목사 61회) 배홍규(삼성SDI상무 61회) 등이다.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계성학교 이야기를 나누며 뒤탈라 나오는 것이 교가였다. 이런 형님들 덕분에 나는 입학도 하기 전에 교가를 다 외울 수 있었다.

계성학교는 나에게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내가 오늘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소양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린 후에 수업을 하며, 매주 수요일 전교생이 대강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계성학교의 신앙 교육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들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학창시절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을 계성 학교에서 보낼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 한해 3일간 하는 대수양회는 유명 강사들이나 훌륭한 선배님들과 덕망 높으며 학식을 가진 당시의 석학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참으로 나에게 있어서는 귀한 지적 재산이된 계기가 이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청록파시인 박목월 선배님의 진달래 낭송, 김형석 교수님의 깊은 철학적 해석, 안병욱 교수님의 구수하며 예리한 철학, 호성여대 음대 학장을 지낸 테너 홍춘선 교수님의 주옥 같은 성악 “산들 바람”, 서울시향 지휘자 정재동 교수님의 아름다운 기악 선율, 아폴로11호 우주인



▲ 미국 LA에서 가족 모임 70명이 모여. 앞 둘째줄 우 3번째 하주복 (45회), 뒷 첫줄 우 1번째 배재규 (61회), 뒷 둘째줄 좌 4번째 배중규(53회), 뒷 둘째줄 좌 7번째 배성규 (43회)

에드윈 올드린의 달 착륙 이야기 등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겐 행운이었다. 계성학교는 전 학생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예술 분야에도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

어린 시절 서울시향의 연주를 지방에서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대구에는 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오직 계성 학교 대강당 뿐이었다. 우리가 좋은 연주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하니 낮에 학생들에게 리허설로 좋은 연주를 미리 보여 준 것이라 생각 된다.

후일에 은사님들께 들은 이야기이지만 낮에 학생들에게 연주를 하는 조건으로 강당을 무료로 빌려주었다고 하였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계성학교 출신 중 “박대준(전 연세대 음대 학장), 현제명(초대 서울대 음대 학장), 김성도(‘어린 음악대’의 작사) 홍춘선(전 호성여대 음대 학장), 임종명(전 호성여대 음대 학장), 이강일(현 계명대 음대 교수), 유호욱(현 계명대 음대 교수), 강신명(전 새문안교회 담임 목사), 김동리(소설가 전 예술원

장), 박목월(청록파 시인)”등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시인들과 음악가들이 모교를 빛나게 하였다.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예술을 접하도록 하며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은 이 만큼 중요한 것이다. 학생들의 자질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교내 음악콩쿨 대회와 미술대전 등은 우리들의 예술적 감성을 일깨워 주었다.

학생들의 체력단련을 위해 1935년 창설된 학교 유도부도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며 한국 유도계를 빛낸 스타들을 배출했다. 안병근(68회), 이경근(68회), 김재엽(70회)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3명도 계성고가 낳은 인물들이다. 나의 외삼촌 하주복(45회)목사도 유도가 좋아서 유도대학에 입학하여서 졸업하였으나 지금은 미국에서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계성학교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었다. 여기서 어린 시절 선배를 만난 얘기를 소개한다. 계성중학교 1학년 입학하여 첫 여름 방학때 서울에 큰 누

님집에 갔다. 우리 형제는 8남매로 그중 나는 막내이다. 서울 역 앞에서 버스를 탈려는데 어떤 신사가 “야, 계성”하는 것이다. 나를 불러 세워놓고 자신이 계성 선배라는 것이다. 어린 나는 참 이상하다 계성 출신이라고 뭐가 다른가, 왜 그러지 생각했다. 난 이 사실을 그리고 난후 몇 십년 뒤에 계성학교 교복을 입고 가는 후배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 지금 아들 둘, 딸 한 명의 아버지이다. 내 아들이 유치원때 아들을 데리고 오십 둘 계단을 오르면서 “너, 크면 이 학교 입학하라”고 하였는데, 아들이 고등학교 갈 때 우선 지원을 하는데 계성은 어디서나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아들을 설득해서 계성을 지원 했는데 애석하게도 아들은 계성의 동문이 되지 못했다.

나는 아직도 이것이 못내 아쉽다. 부자 기간이 계성동문이면 더 좋을 텐데. 하지만, 나는 오늘날도 계성 계성 만세라 우리 계성 만만세, 우리의 자랑인 계성아! 계성아, 영원 무궁하여라, 힘차게 외쳐본다.

대구경북직물공업 협동조합  
(주) 승 리

조합이사장 / 대표이사

김 태 선 (58회 · 총동창회 부회장)

조합: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번지

TEL : (053)252-1821 FAX : (053)252-1823

H.P : 011-517-0112

공장: TEL : (054)463-4523 FAX : (054)461-8668







## 지 부 소 식

## ◆ 재경지부



지난 11월 11일 재경 70회에서 76회까지 7개 동문들이 고양시 소재 서울 지방경찰청 수련장에서 제1회 재경 70회대 동문가족체육대회를 120여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재경 총동창회 조준제 회장과 임원들도 함께 축하하였으며 초대 우승은 76회, 준우승은 72회가 차지 하였다. 매년 그 참가 범위를 늘려서 새로이 후배 동문들을 맞이하며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11월 19일 재경 계성산우회 11월 정기산행을 서울근교의 호젓한 도봉산(740m)에서 개최하였다.

## ◆ 재부지부



지난 10월 13일에 있었던 '계성의 날' 행사에는 임원진이 참석하였지만 다음날 14일(토) '계성동창가족체육대회' 행사에는 45인승 버스 1대를 대절하여 부산역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하였으며, 준비한 김밥과 물로 허기를 달래면서 대구 성서의 계명문화대학 운동장에 도착했으나 기별입장식으로 바뀌어 해산하여 각기 행사에 참여한 후 모든 행사가 종료된 오후 5시에 다시 버스에 집결해서 부산으로 내려왔다.

특히, 명예퇴장을 하는 6명의 48회 원로선배들이 동석하였고 이를 위한 기념촬영시간도 가졌다.

연말 정기총회와 송년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11월 10일 부산역 부근 노블리아센터에서 저녁 6시 30분부터 정기

이사회를 가졌다.

이두영(50회) 회장의 인사 및 총무의 경과보고에 이어 예결산 검토와 차기 임원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차기 회장은 51회에서 내정될 것으로 하고, 일정을 12월 7일(목) 노블리아 센터 7층 연회실에서 저녁 6시 30분에 갖는 것으로 하였다. 기타 동창회 발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원로 선배이신 38회 박근만 고문과 40회 이영목 고문께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참석하셔서 재부동창회의 역사와 함께 덕담을 해주셨다.

## ◆ 재울지부

11월 14일(화) 제주 도세기촌에서 30여명 참석하여 4/4분기 정기모임을 개최하였다.

12월 14일(목) 오후 7시 캐슬웨딩뷔페 4층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 재포지부

12월 12일 오후 7시 포항시내 목화에식장에서 재포항 동문가족 송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 울진지부

울진지부에서는 지난 8월 24일 회장선



손진두(54회)

출과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초대 정태훈(52회) 회장이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원장직을 6월 30일부로 마치고 경북대학병원으로 복귀함에 따라 2대회장으로 손진두(54회) - 현 엑스포 공원 관리사업소장)회원이 선출되었다.

손진두 회장은 앞으로 "동창회의 모임 활성화를 위해 등산, 여행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회원 친목도모는 물론 계성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2006년 9월 1일자로 전극중(72회-울진군청 재무과 근무)회원이 6급 담당으로 진급했으며 총무인 임정준(75회) 회원이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울진군엑스포추진기획단으로 파견되었다.

## ◆ LA지부

LA지부에서는 12월 22일 월서레디슨 호텔에서 가주 계성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주 계성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장 정상훈(49회), 간사 이봉수(65회)는 행사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 기 별 소 식

## ◆ 제43회



△회장 : 양화송

△총무 : 이예규

10월 24일 아침 8시. 보통 관광단체보다는 조금 늦은시간에 우리는 시민회관 앞에서 모여 지리산 단풍구경 및 등산을 하기로 했다. 준비를 맡은 나와 오선생(전 신명여고 교사)은 한 30분 먼저와서보니 그곳은 버스와 관광객들로 대 혼잡이었다. 조금 뒤에 온 우리 일행을 붙잡고 저 버스에 타고 같이 놀러가자고 사정이다. 인원이 좀 덜차는가 싶다 생각했더니 기어이 사정을 한다. 제법 등산장비를 갖춘 아저씨(우법사)보고 사정하니 우법사는 우리 일행은 저 리무진타고 간다고 제법 친절하게 한마디 하고는 커피잔을 들고 한쪽으로 피한다.

한 친구가 올 사람은 다 왔으니 가자고 재촉하여 출발하는데.. "어이! 최고수이거 어디갔어? 백수건달은 지가 여 안가면 어디간다고 안 오노. 총무! 최고수한테 연락 안했어?"하며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잠시 있으니 "최교수(전 상주 모 대학 교수, 현 모사립대 이사장) 너 임마 뭐해? 하지만 걸치고 빨리 나와! 여기는 옛 자갈마당이야 우리가 버스로 집앞까지 갈테니 빨리 나와!"라고 사정점 호통을 친다. 버스는 할 수 없이 최고수 집 앞으로 갔고 우리는 차안에서 기립박수로 그를 맞이 했다.

나는 기어이 한마디 했다. "최사장님 비행기로 모셔야 하는데 버스로 모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들 회비를 내었으나 최사장님의 회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마는

버스가 자기 한 사람을 위하여 집앞까지 대령했으니 그냥 있을 수 없지요. 벌금이 라도 톡톡히 내셔야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하고 은근히 공갈(?)을 쳤다. 그러니 "어허! 얼마면 되는데?" 하면서 20만원을 서슴없이 약속한다. 우리 일행은 박수로 점수(?)하고 한 바탕 웃었다.

우리가 탄 버스는 거창 휴게소에서 잠시 머물고 오전 11시경에 성암 휴게소에 도착하여 노고단 등산을 위하여 대부분의 일행은 내리고 나와 몇은 점심 준비를 위하여 그 아래 시암휴게소로 갔다. 규모로는 성삼휴게소가 훨씬 더 컸지만 그 곳에서는 ??을 해결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후 1시까지 도착하기로 한 친구들이 1시 훨씬 지나도 소식이 없다. 먼저와서 점심을 먹고 기다리던 친구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70이면 나이도 적지 않는데 이 주변머리 없는 친구며 반백은 기본이고 온백머리하며 속알 머리없는 친구들 하나 안빠지고 따라가더니 이 사람들이 다 어찌되었나. 걱정이 늘어졌는데 갑자기 버스가 발 앞에 도착하고 점심먹자고 야단들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영감들이 아침에 거창휴게소에서 많이 먹으면 우동 한그릇, 커피 한 잔 밖에 더 했다. 패지국밥이나 비빔밥 한그릇씩을 푹딱딱더니 여기 뭐 마실거 없느냐고 야단들이다.

이 때다 싶어 회장단은 미리 준비한 소주, 맥주, 막걸리 하며, 적외선에 구운 지리산 흑돼지를 대령하니.. 단번에 20접시요. 실컷 부어라 마셔라 하더니 이제 배가 부르니 여유가 있는가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어이 총무 수고했다며 한잔 하라고 여기 저기서 시골 벽쪽이다. 참으로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내년에는 네가 회장해라! 그 다음에는 내가 회장할게. 늙어가며 이렇게 얼굴이라도 한번씩 보는거 얼마나 좋노?"

시계를 보니 3시가 넘었다. 우리의 처음 코스인 되아골을 거쳐 하동 섬진강 푸른 물결을 굽어보며 최참판댁을 둘러돌아오려고 했으나 봄날은 길고 가을해는 빨리 진다고 하든가. 우리는 서둘러 차에 타고 천운사를 둘러 대구에 도착하니 오후 8시경이었다.

개교100주년! 졸업50주년! 계성43회는 이렇게 하루를 보냈다.

## ◆ 제54회

△회장 : 나정수

△총무 : 정태우, 최정태

11월 23일(목) 오후 6시 30분 마패회가든에서 동교회 4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12월 5일(화) 오후 6시30분 JS 관광호텔(구.동대구관광호텔) 별관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2006년도 정기총회 및 가족동반 송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부산, 마산, 창원, 진해, 포항지역 동기생 참석을 환영합니다.

## ◆ 제56회

△회장 : 강동구

△총무 : 최돈문

9월 22일 자금성에서 100주년 총동창가족체육대회 건으로 동기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교회 이사회를 가졌다.

## ◆ 제57회

△회장 : 배광순

△총무 : 정병수

모교의 개교100주년 기념행사는 우리 57회의 단합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서울 및 각 지역에서 27명, 대구 64명, 총 91명이 모였고 대회 성적도 역대 최고인 종합 준우승을 이루었다. 2인3각 달리는 누구도 넘 볼수 없는 주 종목이 되었고, 대회 때마다 숫적 열세로 분투를 삼켰던 줄다리기도 우리가 우승 할 줄 꿈에도 몰랐다.

이 모두가 우리 동기의 단합된 힘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개교100주년에 맞춰 대구회원도 100명에 육박하니 임원진에서 힘이 배가 된다.

토요일 행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준 서울 및 기타 지역 그리고 대구 회원님들, 특히 치밀하게 행사 계획하신 동교회 부회장 이사님, 행사 때마다 수고하신 여성 회원님, 감사드립니다."

## ◆ 제58회

△회장 : 이재천

△총무 : 김은홍, 이승현

지난 8월 11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이재천, 감사:신병용, 이종희, 총무:김

은홍, 이승현을 선출하고 8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6년도 사업계획 및 100주년 체육대회 준비와 추리닝 남·여 각 100벌 제작과 동교회 주소록 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수집 등을 논의 하였다.

10월 14일 개교100주년 기념 동창가족체육대회에 서울 32명, 부산 3명, 포항 4명, 대구 101명 총 140명이 참가하여 바둑대회 2위, 여자 풋볼 2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10월 22일 대구·서울 봉화 청량산 합동산행에 대구 13명, 서울 13명이 참가 하였다.

## ◆ 제61회



△회장 : 예병국

△총무 : 배영호

9월 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재경61회 동교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9월 첫째 주 토요일 한낮의 햇볕은 따가웠지만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잘 다듬어진 과란 잔디 그라운드는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비록 몸은 세월의 무게만큼 험박였지만 마음만은 학창시절로 돌아간듯 했다. 잘 짜여진 스케줄은 없었지만 동기 40여명이 모여 미니축구로 시작하여 점심식사, 다시 미니축구, 족구와 마무리 시간으로 이어진 이날의 공식일정은 오후 7시에 폐회하였다.

멋진 장소와 양주, 수고비까지 풀 서비스한 최봉환 동기, 불원천리 한걸음에 달려온 61회 회장 예병국 동기 이하 대구 동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날 참석한 모든 동기 및 부인에게도 감사 드린다.

12월 9일(토) 오후 6시 굿타임 수성점(수성동 입구 수성랜드 3층)에서 송년회 겸 2007년 신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 제62회



△회장 : 김칠봉  
△총무 : 김홍대

10월 14일 9시30분 약속시간에 맞춰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오후엔 동기99명 가족이(총인원153명) 개교100주년을 빛내기 위해 참석하였다. 물론 늦게 온 동기들은 준비한 음식물이 동이나 집행부를 무안케 했다. 운동장에 그림자가 길어질 즈음 포항행 버스2대를 타고 북부해수욕장의 해풍과 싱싱한 회를 안주삼아 흥을 돋우었다. 더욱이 바쁜일로 참석치 못한 친구들이 도착해 소개될 때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랐다. 다음날 아침 동해안 일출 구경과 함께 물회로 아침을 먹고 경주 안압지, 반월성, 국립박물관을 관람하고 고향이 풍기는 쌀밥집에서 배고픔을 달랬다.

아쉬운 이별을 교가제창으로 대신하며 각자 버스에 올랐다.

12월 2일(토) 오후 6시 아미그호텔 2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 제63회



△회장 : 이두복  
△총무 : 김현철

2006년 9월 1일(금) 오후 7시 영남별장에서 많은 이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3/4분기 이사회를 가졌으며, 졸업3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논의 하였다.

10월 14일(토) 18:00 갯바위 유스호스텔에서 KBS 송연주 아나운서 사회로 63회 졸업3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고3때 담임 선생님 네분을 모시고,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11월 17일 오후 7시 지왕골 왕갈비에서 송년회 밤 개최전, 동기회보 제15호 발간건으로 4/4분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12월 16일(토) 오후 6시 세인트웨스턴호텔 6층 컨벤션홀에서 2006년도 송년의 밤 및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 제65회

△회장 : 정재원  
△총무 : 서태교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 65회는 계성 100주년기념 총동창 가족 체육대회에서 압도적인 점수로 우승의 영광을 이룰수 있었다. 총동창회와 선배 기수들, 후배 기수들로부터 부러움과 경이로운 기수라는 찬사와 질투도 들려오곤 한다.

이 모든 일들이 어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정재원 회장을 위시한 집행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기님들께 다시금 감사를 드린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할 순간들이 가까워졌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육대회 때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과도 이 번 송년의 밤 행사에서 함께 우승을 나누고 싶다.

12월 16일(토) 오후 7시 30분 성서 세인트웨스턴호텔 6층 특실룸에서 송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꼭 뵙기를 소망합니다."

## ◆ 제67회

△회장 : 김원호  
△총무 : 이창엽

11월 12일 오전 9시 가산산성에서 정기

산행을 개최한 후 오후 1시에 한티재 부근 오리이야기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12월 2일(토) 오후 6시 자금성에서 2006년도 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할 예정이다.

## ◆ 제69회

△회장 : 안재갑  
△총무 : 신승철

홀커밍 추진 준비위원회의 5차모임이 10월 19일 제주어촌에서 열렸다.

## ◆ 제70회



△회장 : 김형곤  
△총무 : 박준석, 최동현

10월 4일 제10차 추석 명절 모임을 가졌다. 2002년 구정 때부터 모임을 시작하여 명절 때 멀리서 고향을 찾는 벗들과 대구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모임을 가지는데 올해는 시내 중앙동 송학구에서 36명의 친구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동기회 모임은 "고향을 찾는 마음"과 같이 항상 만날 때마다 마음이 설레이고 즐겁다.

10월 14일 총동창 가족 체육대회에 동기 74명(가족 102명 총 176명)의 많은 친구들이 와서 참 반갑고 즐거웠다. 다양한 준비로 올해 동기회 모토인 "즐거운 동기회"를 실천하였고 나름대로 모교의 100주년을 빛내었지 싶다. 체육대회를 마치고 강창유원지로 이동하여 얼큰한 매운탕에 자체 뒷풀이 행사를 가졌다. 동기회 자체 참석선물인 고급 코펠(7~8인용 경질) 및 MP3 등 올해는 풍성한 체육대회를 치

루었다.

12월 16일(토) 오후 6시 귀빈예식장 별관 3층 장미홀에서 2006년도 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할 예정이다.

## ◆ 제71회

△회장 : 박범준  
△총무 : 김창일

12월 1일(금) 오후 7시30분 MBC사거리 '돈박이'에서 2006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할 예정이다.

## ◆ 제72회

△회장 : 이동영  
△총무 : 김기영

갑격스런 100주년 체육대회 우승을 뒤로한채 한해를 마무리 할까한다. 아직 두달여 남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공지하는 것은 이제 72회 친구들과 함께하는 송년회의 비중도 어느 정도 커졌으리라 생각하고 각자의 일정조정을 위해서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인만큼 그동안 격조했던 친구들과 다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총회 및 송년회 일정은 아래와 같다.

▷일시:12월 23일(토) 오후 6시 30분

▷장소:그랜드호텔 본관5층 프라자홀

## ◆ 제76회



△회장 : 김경운  
△총무 : 배성우

9월 22일(금) 오후 7시 성서의 아로마 웨딩 뷔페에서 40여명이 참석하여 동기회를 가졌다.

## 인 물 정



▷이성행(27회) 동강이성행 교수 미수 기념 '제4회 한국 최초 개심술 기념 강연회'가 9월 16일(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및 동문회 주최로 대구그랜드호텔 리젠시홀에서 열렸다.



▷권기호(43회) 권동문은 제8회 설송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 '무제'로 '자유문학' 신인 문학상(1962년)을 수상하며 문단에 데뷔한 권시인은 '현대문학'에 평론 '비유의 시도 이유'를 추천받아 평론가로도 활동해 왔다. 1969년 시집 '서쪽의 풍경'을 발간, 도회적 풍경을 풍자적으로 묘사하면서 절제된 감정으로 시니컬한 정서를 심화시켜 왔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러한 작품세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권영식(44회) 지난 10월 20일 총회회관에서 기독교신문사 사장에 취임하였다.

▷김경진(47회) 신라섬유(주) 대표는 지난 18일 GS프라자호텔에서 40년 인생여정을 정리한 문집 '상하의 만남'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서규철(52회) 8월 22일~8월 27일까지 동구 문화체육회관에서 도예전을 개최

하였다. 연을 주제로 한 전통 도자 작품 15여점, 찻그릇 10여점, 다기세트 다수를 선보였다.



▷이승한(52회) 삼성테크스코 사장이 8월 22일 영남대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2일 오전 열린 영남대 2006학년도 후기 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이 사장은 국내 유통혁신을 주도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존경받는 기업인상을 보인 공로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사장은 2004년 한양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어 국내 유통업계에서 박사학위 2개를 받은 최초의 최고경영자(CEO)가 됐다.



▷김석국(53회) 성주여자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김동문이 2006년 9월 1일자로 교장으로 승진하였다.

▷이 환(53회) 9월 1일부로 울릉 북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받았다.

▷이병구(53회) (주)네팩스 회장은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하고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이 후원한 '벤처코리아 2006 벤처기업대상'에서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김복수(54회) 9월 1일 대구 서촌 초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김창수(54회) 10월 9일자로 경상북도 국제관계 자문대사로 취임하였다.

▷한명로(54회) 10월 23일 동작 세무서

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무원(54회) 9월 1일자로 달성중에서 대구 황금중학교 교장으로 전보 발령 받았다.



▷김진도(55회) 대한유도회 부회장이 이달 초 몽골 유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몽골 올림픽위원회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다. 계성고와 용인대에서 선수로 활약한 후 경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부회장은 수년 전부터 몽골 유도 대표선수들을 국내에 초청, 기술 지도를 돕는 등 몽골 유도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손영대(55회) 손동문은 영남대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자원기반관점과 주유소 전략경영'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30여년간 주유소 업계에 종사해 온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주유소 업계의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함과 동시에 실무적으로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을 들었다.

이 논문이 2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경영학 관련 학위논문중 질적으로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어지는 '2006 한국산업경영학회 우수 학위논문상'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안게 됐다. 대구상의 4선 상

공위원이기도 한 손동문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구도속에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주유소 업계에 미약하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유인(55회) 각종 공구나 금속, 석재 등을 갈거나 다듬는데 사용하는 연마용 숫돌 제조 외길을 걸어온 포항공단의 제일 연마공업(주)이 16일 포항 그랜드호텔에서 창립 51주년 기념식을 겸한 50년사 발간식을 가졌다.

'혼으로 빚어온 연마 외길 50년'으로 이름붙인 50년사에는, 대구 북성로에서 '동일농장주사'를 경영하던 고(故) 오일용 창업주(전 대구상의 회장)가 1955년 부산 동래역 근처의 초자공장을 인수해 '제일연마공업사'를 창업하고 업계 선두자리에 오르기까지 창업 전후사를 상세히 담고 있다.



▷황기철(56회) 대구시 유도회장인 황동문은 내년 1월 대구에서 예정된 20주년 기념 한·일 친선소년유도대회 개최를 협의하기 위해 28일 일본으로 출국하여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사가현 유도협회를 방문하였다.

▷이상천(57회) 창원 클러스터 추진단이 광주에서 열린 제3회 지역혁신 박람회에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모델'을 정립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11월 21일 공학기술 문화 확산과 공학교육 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제2회 한국공



학 한림원 해동상'을 수상했다.



▷우정구(58회) 26회 대구시 문화상의 언론 부문에 영예의 수상자로 27일 오후 결정되었다. 타부문의 6명의 수상자와 함께 10월 2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의 날 기념식장에서 수상을 하게되며 대구시 문화상은 1981년 이래 대구의 문화예술평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발굴 격려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어 이어오고 있는 권위있는 문화상이어서 뜻이 깊고 우리 계성의 영광이다.



▷이용두(58회) 대구대 총장은 1일 “최적의 교육 환경을 구축해 교수들의 강의 역량을 높이고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중심 대학’의 새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총장은 ▷대학 구성원 화합 ▷교육중심 대학 여건 조성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정보화 및 학생복지 수준 향상 등을 학교발전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내세웠다.



▷이인기(59회) 국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위원장은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임병현(60회) 남구청장은 16일 안동과학대학 수련원에서 열린 “바르게 살기 남구협의회 회원 수련대회”에 참석, “남구발전을 위한 과제와 방향”에 대해 특강했다.

▷임영균(61회) 비디오 아티스트인 고(故) 백남준 선생의 사진을 20여 년간 촬영했던 임영균 중앙대 사진학과 교수가 지난 12일부터 뉴욕 맨해튼 갤러리 '2x13'에서 '백남준의 회상' 사진전을 열고 있다. 11월 11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임 교수가 뉴욕대 유학시절인 1982년 휘트니미술관의 백남준 첫 회고전 때 찍은 사진부터 40여점이 걸려 있다. 최근 사진은 지난 2000년 구겐하임 미술관의 마지막 회고전이다.



▷박은수(62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은 19일 공단이 주관하고 노동부와 대구시가 주최해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2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석, 개최를 축하하였다.

▷김대식(62회) 김동문이 2006년 정기 인사에서 장군으로 승진하였다.

▷구 정(65회) 작년 9월 공군 대령으로 승진(예보)된 구동문이 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 정식으로 공군대령 계급장을 수령함으로 공군대령으로 승진하였다.

▷홍중욱(65회) 팔공건설(주) 대표이사는 2006년 대구시 건축상 은상을 수상하였다. 팔공건설(주)사옥의 경우, 작은 규모의 건물이라도 그 질적 수준이 우수해 도심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줬으며 웰라인도 첨단IT 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공장 건축의 비전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로 돋보이는 작품이었다고 평가했다.

▷이필환(69회) 계명대 교무부처장으로 승진했다.



▷양승재(71회) 삼화식품(주) 대표이사는 11월 11일 한국전략마케팅학회 주최로 영남대에서 열린 2006년 한국전략마케팅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마케팅 대상 시상식에서 마케팅 대상을 수상했다.

▷전영범(72회) KBS에 근무하고 있는 전동문이 '영화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발간하였다.

### ◆ 축하드립니다.

▷홍호용(53회) 장남 결혼(9/30)  
▷전장대(53회) 차녀 결혼(11/5)  
▷정갑동(53회) 장남 결혼(11/4)  
▷박인환(53회) 장녀 결혼(10/29)  
▷김진식(53회) 장녀 결혼(10/15)  
▷변상선(53회) 장녀 결혼(9/24)  
▷유경술(54회) 유동문은 북구 침산동에 마패회가든을 신장개업하였다.(연락처 053-427-5002, 위치:구)제일모직 동편 길 건너에서 도청방향 200m 지점)

▷김규상(54회) 장녀 결혼(10/14)  
▷김진환(54회) 장녀 결혼(9/23)  
▷나정수(54회) 도개온천 대표를 사임하고 10월 1일 “동화집장”을 개업하였다.

▷배순홍(54회) 장녀 결혼(8/27)  
▷최광호(54회) 삼남 결혼(10/21)  
▷남동희(54회) 차남 결혼(11/4)  
▷정태성(54회) 차녀 결혼(11/18)  
▷이인석(54회) 장남 결혼(11/19)  
▷배동왕(54회) 장남 결혼(11/19)  
▷이병윤(54회) 장녀 결혼(11/25)  
▷이민혁(55회) 장녀 결혼(9/9)  
▷박성근(55회) 장남 결혼(10/14)  
▷정순식(55회) 차남 결혼(11/11)  
▷김영수(55회) 장녀 결혼(9/23)  
▷서정하(55회) 장남 결혼(9/10)  
▷조현목(55회) 장남 결혼(9/24)  
▷김문영(55회) 장녀 결혼(9/24)  
▷김규호(56회) 영남대 연구처장으로 보임.(8/7)

▷전병철(56회) 장남 결혼(9/9)  
▷김상원(56회) 장남 결혼(9/9)  
▷정국표(56회) 갈비고를 식당 개업(송현동 세강병원 앞) T.053-652-9336  
▷이승현(58회) LIG 손해보험 자평 대리점을 개업.Tel: 430-2130  
▷이병윤(58회) 신사 정장및 캐주얼 브랜드인 장괴엘 대리점을 개업하였다. T. 031-714-1804

▷김장섭(58회) 장녀 결혼(11/25)  
▷이원두(58회) 장남 결혼(11/12)  
▷이병희(59회) 장녀 결혼(11/11)  
▷김재욱(59회) 장녀 결혼(11/5)  
▷홍의락(60회) 장녀 결혼(9/15)

▷임사은(61회) 관공서, 병의원, 각종건물을 대상으로 청소, 경비, 주차관리업무 등을 하는 (주)선진 B.M 대구지사를 9월 23일 개업하였다.(연락처:사무실 053-941-0396, 휴대폰 011-536-1256)

▷김명석(61회) 자녀 결혼(9/2)  
▷이강일(61회) 계명대학교 음악대학에 재직중인 이동문이 10월 24일 대구시 민회관에서 열린 “계명심포니밴드” 제20회 정기연주회 지휘를 맡았다.

▷이중현(61회) 8월 1일 자로 경북예술고등학교 교감으로 승진하였다.

▷박건우(61회) 가마솔국밥집을 구미시 신평동에 개업하였다. (9/9)

▷김수길(61회) 자녀결혼(9/29)

▷김현중(62회) 구미시청앞에서 식당을 개업하였다.(상호:생산자 한우마실, 위치:구미시청앞 송정동(북개천), 전화 054-455-9199, 011-9575-8788, 김동문이 직접 선별한 최고급 “한우”만을 취급)

▷방인철(62회) (주)효원라이프 장례서비스 대구·경북센터를 북구 서변동에 개업하였다.(T.(053)952-6700, 956-1365 홈페이지 www.hyowonlife.com).

▷송원화(62회) 부인과 함께 인천에서 제과점(파리바게뜨 작전 동보점)을 개업하였다.(8/24) T. 032-556-8204.

▷김태웅(62회) 계명대학교 내 기업 부

## 「계성 100년사」 구입 안내

개교100주년을 기념하여 계성의 100년 역사를 정리한 「계성 100년사」와 화보집 「사진으로 본 계성100년」이 함께 출간되었습니다. A4판 640쪽의 본 책과 250쪽의 화보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문여러분의 많은 격려 바랍니다.

•가 격 : 2만원

•구 입 방 법 : 계성고등학교 행정실 ☎ 053)250-2401로 문의

•대금납입방법 : 신한은행 100-022-368287(예금주:계성고등학교)에 2만원 납입후 행정실로 책을 받으실 주소를 통지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학교부담

설 연구소 설치. (주) 울트라보드와 계명대학교 환경대학의 상호 정보교류와 소방방재 시스템의 상호 개발을 위하여 협력하게 되었다.

계명대학교 내 산학협력 기술연구소는 제 1호로 계명대학교 “환경대학장 박상원 교수”의 지도와 협력으로 설치되었다. 향후 소방방재시스템 중 소재분야에서 (주) 울트라보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계명대학교의 연구진과 (주) 울트라보드의 협력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이 과제가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봉기(63회) 지역주민의 편의도모와 상가의 번영을 위하여 지역에 산재한 상가를 전화번호부 책자로 제작하여 널리 홍보하는 “상가소리” 사무실을 9월 15일자로 달서구 대곡동 2-23번지로 확장 이전하였다.(연락처 053-644-7922, 011-528-7942)

▷이 탁(63회) 이동문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 이번에 새로운 가게를 개업하였다.(상호:e플러스, 업종:상품권 할인마트(구입&판매), 상품권:백화점, 할인점, 주유, 제화, 도서, 문화, 농산물, 외식, 관광 등), 선불카드:기프트카드, KT카드, 고속도로카드등, 위치 : 성서 이곡역 평화타운 맞은편, 연락처:053-585-6464, 011-810-6520)

▷김상식(63회) 재학시절 유도부 주장으로 활동하던 김동문이 시내 동아백화점 뒤편에 “대흥호텔”을 인수 개업하였다.

▷배광한(63회) 배동문이 테너 파트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애노를 합창단 패밀리 콘서트가 8월 26일(토) 저녁 7시 30분, 대구 시민회관에서 성대히 열렸다. 동 합창단의 ‘뮤직센터’ (총 단원이 200 명에 이르는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로의 승격을 기념하는 콘서트로서, 수많은 관람객들이 시민회관을 가득메운 가운데, 약 2시간 가량 열렸으며, 아마추어 합창단의 수준 높은 합창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11일 대구학생 문화회관에서 열린 남성 합창단 창단 기념 합창에 이은 행사로서, 오는 12월 15일경 정기 합창 발표회가 또 다시 열릴 예정이다라고 한다.

▷권태순(63회) 장녀 결혼(10/21)

▷나건연(65회) 9월 1일부터 칠곡피부과 병원(칠곡지하도 동아백화점 옆)을 개원하였다.(T.053-326-1111)

▷오수희(65회) 칠곡에서 제일모직 아울렛매장을 오픈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동문들의 많은 축하와 격려를 바랍니다.(위치:칠곡3지구 보석사우나 옆 공영지구 앞, 공영주차장을 이용, 연락처 : 011-507-6380).

▷구자일(65회) 구동문이 원장으로 있는 구병원이 8월 23일 증축 기공식을 가졌다.

▷원상희(65회) (주)북비즈넷을 강남구 삼성동에 개업하였다. T.02-555-2772

▷이인탁(67회) 돌고래 통나무 펜션을 화진해수욕장에 오픈하였다.

▷이동호(67회) 미시간 치과그룹 치과를 강남구 신사동에 개업하였다.(10/14) T.02-540-2833

▷권윤정(69회) 불로동에서 신세계정형외과의원을 확장이전 개업하였다.

▷장영호(69회) 장동문이 운영하는 영지산업이 10월 21일 염색공단내로 이전 개업하였다.

▷김유석(71회) 대가락(고깃집)을 개업하였다.

### ◆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찬우(40회) 전 국회의원이 지병으로 별세(8/18)

▷김웅길(45회) · 김신길(54회) 부친상  
▷신중철(45회) 별세(8/9)  
▷박준배(45회) 부친상  
▷이광우(45회) 별세(7/17)  
▷김재화(54회) 부친상(8/20)  
▷김준수(55회) 모친상(8/8)  
▷강상학(56회) 모친상(10/26)  
▷박남기(56회) 청도부군수 별세(10/23)  
▷이상원(56회) 부친상(8/4)  
▷박중철(56회) 부친상(8/13)

▷배정환(58회) 모친상(11/2)  
▷홍덕조(59회) 부친상(9/12)  
▷김석규(59회) 모친상(10/27)  
▷김병태(60회) 장인상  
▷김성기(61회) 부친상(11/4)  
▷김경배(61회) 모친상(8/2)  
▷김재욱(61회) 부친상(9/2)  
▷안순필(61회) 장인상(8/8)  
▷이정희(62회) 장모상(9/13)  
▷우영철(62회) 장모상(8/4)  
▷김동수(62회) 모친상(8/8)  
▷김진하(62회) 부친상(8/9)  
▷박병렬(62회) 부친상(9/17)

▷장인호(62회) 장인상(10/14)  
▷고태식(62회) 부친상 (11/5)  
▷이일우(63회) 부친상(9/27)  
▷박진수(63회) 별세(9/19)  
▷고수환(63회) 조모상(8/27)  
▷오세태(63회) 장인상(8/1)  
▷권호중(63회) 조모상(8/5)  
▷남명우(63회) 부친상(8/18)  
▷최희승(65회) 모친상(9/16)  
▷김상욱(65회) 부친상(9/6)  
▷최갑식(65회) 부친상(9/12)  
▷김노주(65회) 모친상(7/31)  
▷이상택(65회) 부친상(8/4)  
▷서태교(65회) 조부상(10/8)  
▷권택성(65회) 부친상(10/17)  
▷김중환(67회) 별세(9/6)  
▷김동환(67회) 모친상(9/10)  
▷김진호(67회) 모친상(11/3)  
▷홍진표(70회) 부친상(9/27)  
▷손재호(70회) 부친상(9/29)  
▷조언호(71회) 부친상  
▷이기홍(71회) 장인상(9/2)  
▷손창호(71회) 모친상(9/2)  
▷장동현(71회) 부친상(11/5)  
▷신병훈(71회) 모친상(7/31)  
▷마홍원(72회) 부친상(10/26)



## 동문시단

## 막달레나

신 일 희 (44회)

배운 것 가진 것 없이 가로등 사이를 오간다.  
질어 밀리는 향수 덕분에  
날벌레들은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래도 한평생 인층에게 아래위로 물리며  
이제는 통증마저 다 뜯기고  
근육만 움직여 이어 가는데

내 마음을 되찾아 주신 님  
아픈 마음, 기쁜 마음, 터지는 마음  
찾아 주신 님 위해 내 다시 태어나리다.  
내 순결 흘려 얻은 향유,  
지켜 온 머리 모두 님의 발 아래 드리우고  
님 위해, 님만을 위해 내 생애 끝난 뒤  
내 마음 숨쉬며 제일 먼저 님을 따라가오리다.



미국 Trinity대학, Princeton 대학  
독일문학 전공  
학교법인 계명기독교학원 이사장  
계성문학회, 대경기독교문학회  
시집 『유한의 빛』

## 모교 개교100주년기념 계성동문사진전

모교 개교100주년을 맞아 그동안 대산맥과 활화산 같은 웅대함과 열정으로 사진예술의 발전을 주도해 온 전국의 계성동문 사진가가 한자리에 모여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동문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전시기간 : 12월 11일(월) ~ 12월 17일(일) (7일간)

◆ 전시장소 : 대구문화예술회관 10전시실 (<http://artcenter.daegu.go.kr>)

◆ 참여작가 : 노영하(38회), 조주환(45회), 강운구(47회), 김국연(47회)  
박희태(48회), 이철사(50회), 박재건(53회), 김석규(53회)  
이태영(54회), 박순국(55회), 백명진(58회), 이명우(58회)  
정규택(58회), 최재영(59회), 임영균(61회), 권태균(61회)  
이명조(63회), 배홍관(64회), 김진일(64회), 최해국(66회)  
박관영(66회), 이경운(67회), 이동준(67회), 안동상(68회)  
장진필(교원대표)

계성동문사진전 추진위원장 이 태 영 (54회)

박성대 회장 건강백서 발간  
『산천초목 건강풍월』

총동창회 회장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박성대 회장이 최근 건강 100세 지침서이랄 수 있는 『산천초목 건강풍월』을 출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저서에서 박회장은 건강하게, 특히 장수하기 위해서는 生水, 生氣, 生食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본 저서는 지난 2000년부터 월간 『경제풍월』에 5년간 연재하였던 것을 이번에 묶어낸 것으로 평생을 건설업에 종사하며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해왔던 저자가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건강에 관한 많은 서적을 독파한 것이 이번의 저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문은 몸을 타고날 때부터 건강하면 좋지만 꾸준히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것은 음식과 규칙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등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 제3공화국의 1960년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명령의 시대였다. 이 시기에 저자는 구미공업단지, 경부고속도로, 창원공업단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 현장 소장, 그리고 현재 대동

주택 명예회장으로서까지 공사현장에서 24시간 철야작업을 통해 공기를 단축, 공사를 완공시킨바 있었다.

이처럼 현장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일근천하무난사, 즉 열심히 일하면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의 격언도 큰 힘이 되었다. 때문에 평사원에서 회장까지 승진할 수 있었던 힘의 바탕이 되기도 했다.

본 저서는 자연속의 건강풍월 내 손이 약손이다, 산천초목과 신토불이, 예방의학에 무병장수, 물이 생명이다, 노인건강 규칙 등 6부로 되어 있으며 권두에 모교 재학시절과 각종 공사

현장에서의 모습 등을 화보로 담았다. 특히 저자는 지난해 10월, 순천향대학교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그리고 2005년 7월 Golf Age Shooter한바 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 고연회 총회장, 대동주택 명예회장으로 있다.

경제풍월 발행 <신국판 328면>  
정가 13,000원

김영수(73회)의 아동 매춘에 관한 탐사 기록!  
『바빌론의 음모』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동매춘 공화국이다. 창녀촌에서 섹스도 즐기고 돈도 버는 '갈보'들이 있을까? 무엇이 우리사회를 매춘에 탐닉하게 만드는가?

아동매춘이 고대 바빌론의 신전매춘에서 비롯된 사실을 밝혔다. 신전 사제들은 매춘으로 돈벌이를 하고 성병을 퍼트리는 주범이었다. 바빌론의 향락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목적으로 하는 음모는 순결과 정의의 파괴이다.

바빌론의 음모는 현대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다. 매춘 시장으로 인신매매되는 어린 예수들을 대중매체는 '창녀'로 손가락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더러운 갈보'는 있고, '나쁜 놈'은 하나도 없다. 이 책은 그 나쁜 놈들을 고발하고 있다.

<다빈치 코드>가 대박을 터트리는 것을 뻔히 보면서, 이렇다 할 법적 제재를 못하는 이면에는 바빌론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빌론의 음

모는 맘몬(돈의 신)의 음모이다. 맘몬은 모두를 돈 벌이의 노예로 만들어, 예수를 섹스 스캔들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고, 선정적이고 음란한 아동포르노의 범람으로 성인 남성들의 '오입'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동매춘이 성행하게 만든다.

여성은 잘난 남자 하나를 만나 결혼을 해야만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다빈치 코드>의 논리는 여성 모독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성스러워진 이유는 남자 예수의 정자를 받아 아이를 임신하였기 때문이다.

여자는 남자의 삽입욕구를 충족하는 자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여자 아이들의 자궁도 매춘에 이용당하여야 하는

가? 이 책은 바빌론의 음모를 통해 <다빈치 코드>와 아동포르노, 아동매춘의 범람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간파하고 있다.

(주)에세이 <에세이 100인 총서 83>  
정가 10,000원







원자력 의학원에서 발명한  
세계적 특허물질 인삼속 진주 “진산”

# ‘진산’ 최고 18배의 항암면역증강 효과

## 인삼속 진주 ‘진산’의 발명 배경

한국원자력의학원은 1990년부터 인삼, 홍삼, 버섯, 쑥 등 70여종의 약용식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진행한 결과 인삼 속에 기존에 알려진 사포닌이 아닌 다당체물질이 면역세포 활성화와 더불어 암세포의 전이를 막아주는 뛰어난 효능을 보였으며 이 물질의 이름을 진산(Ginsan)이라 명명하였다.

13년간의 연구와 수십억 원의 자금을 들인 국책사업. 인삼 1,000Kg에서 30Kg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진산’은 97%의 인삼을 버리면서도 추출할 정도로 그 가치가 대단해 가히 인삼속 진주라 할 수 있다.

## 인삼속 진주 ‘진산’의 동물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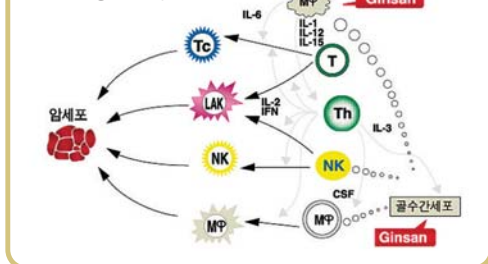
고려인삼학회에 발표된 ‘진산’의 논문과 특허등록공보에 따르면 각종실험결과 암에 걸린 쥐에 진산을 주입시킨 결과 종양세포의 성장을 60%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NK세포의 활성화는 2.4배, T세포의 증식은 2.1배, Cytokine(항체의 생성을 유도해서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싸우는 분자)산생능은 진산을 주입하지 않은 쥐에 비해 300배로 현저히 증가되었다.

또한 암세포의 전이를 44% 억제함과 골수모세포의 경우 4.7배 백혈구 수치는 2배 증가하는 등의 효능을 보였으며 암세포살해면역세포 생성작용 3.5배 방사선민감작용에서 일반대조군에 비해 45%의 방사선감소 수치를 나타냈다.

## 진산의 특허

이 물질은 지속적인 암환자의 증가와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13년간의 연구끝에 국내최고의 암의료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구 원자력병원) 면역학 연구실에서 발명된 최고의 면역증강물질이다. ‘진산’의 효능

진산의 항암메카니즘



진산의 국내 외 특허 현황(일본, 영국, 이탈리아 특허출원)

제 목	등록일	등록번호	국명
면역증강효과를 나타내는 인삼단백다당체(“진산”)	1998.4	제144130호	한국
조혈촉진작용, 골수방어작용, 암세포살해면역 세포생성작용 및 방사선민감작용이 우수한 인삼다당체	2000.8	0361187	한국
The hematopoietic myelorocheing, antitumor immune cells generating and radiosensitizing polysaccharide isolated from panax ginseng	2003.4	6555527	미국

특히는 면역력강화효과가 있음을 밝혀낸 원자력의학원 윤연숙 박사는 1993년 12월 특허를 출원, 5년만인 1998년 4월 면역증강효과를 나타내는 인삼단백다당체

(“진산”)이라는 명칭으로 국내 특허(특허 제144130호)를 획득했

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결과 2000년 8월 효능특허를 출원하여 2002년 11월 ‘조혈촉진작용, 골수방어작용, 암세포 살해 면역세포생성작용 및 방사선 민감작용이 우수한 인삼다당체’로 국내특허(제 0361187호) 및 미국특허(제6555527호)를 받음으로써 효능에 대한 국내외적 인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에도 출원중이며 지속적인 임상실험 중이다.

## 수입 암치료 보조제 대체 품목으로 평가

현재 암은 수술이나 방사선, 화학요법 등으로 치료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50% 환자밖에 치료 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약용식물, 침, 뜸 등의 대체의학으로 암치료를 높이려고 노력중이다. 특히 암치료 보조제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독일의 헬리크, 일본의 피시바닐, 레티난 등은 고가의 제품으로 ‘진산’은 이를 대체할 물질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기존 항암보조제와는 달리 암세포를 없애는 T세포와 대식세포, NK세포, LAK세포 등의 활동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부작용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산 양산화

원자력의학원은 인삼속 진주인 ‘진산’ 추출기술을 벤처기업인 코인텍([www.kointec.org](http://www.kointec.org))에 이전시키고 양산화에 성공했다.

코인텍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는 암환자 또는 암 예방을 목적으로 복용하는 진산원액인 진산고,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진산젤, 수험생이나 자녀를 위한 진산액, 음주전후 또는 운동 후 마시는 진산-D 등이 있다. 특히 진산의 효능이 입에서 입으로 끊이지 않고 전파되면서 암환자 및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이 생명인 대전시티즌 축구선수단을 비롯하여 각종 언론, 의료계 등 많은 사람들이 섭취복용하고 있다.

또한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공식상품화권자에 선정됨으로써 세계화 전략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코인텍의 이승근 대표는 ‘국책사업의 결과물을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97%를 버려야만 태어나는 ‘진산’이 국내를 대표하는 건강식품에서 세계를 대표하는 물질이 될 때까지 끊임없는 연구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동주(의학전문 프리랜서) 문의 : 080-482-2332 / [www.kointec.org](http://www.kointec.org)